

제주33프로젝트 Jeju 33 Project



제주33프로젝트 / 기후시민3.5



climatecitizens.org



귀한 시간을 내서 인터뷰 해주신 분과
자료와 도판을 제공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조사 및 인터뷰 2020. 11. 01 - 2021. 03. 30

장소 <https://climatecitizens.org> / <https://han.gl/U2qlx>

기획 양은희

코디네이터 김해다 박민희 이주희 정필주

발행 제주33프로젝트

발행일 2021. 03. 31

****표지:** 제주이호태우해변의 봉전수 등. 오래전 봉전수를 쉽게 찾고 활용하기 위해 주민들이 만든 원형 구조물이다. 지금도 현무암 층을 통과한 차가운 지하수가 나온다

목차

미완의 부감도: 제주33 프로젝트에 대하여	1
리서치	
강술생 작가의 생태미술	4
곶자왈 사람들	6
기후변화 연극버스, 블록BUS타, 2018	8
김지환 작가의 업사이클링	10
꿈꾸는 고물상	12
문화공간 양	13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	15
우도동굴음악회	17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Asia Climate Change Education Center)	19
해녀 사진작가 유용예	21
재주도좋아	23
제주특별자치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25
제주도청 앞 천막촌	27
제주돌문화공원	29
제주환경운동연합	31
탐나라공화국	33
인터뷰	
고길천 작가	36
고현준 대표(제주환경일보)	38
김완병 박사(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41
김키미 대표(개구림비 마르쉐)	44
신현정 녹색당 청년대표	46
양수남 대안사회국장(제주환경운동연합)	48
이다슬 작가	51
임형묵 감독	54
정은혜 작가	56
조약골(핫핑크돌핀스)	58
최혜영 작가(제주코랄프로젝트)	62
현원학 박사(제주생태교육연구소)	67
제주33프로젝트 팀	70

미완의 부감도: 제주33 프로젝트에 대하여

1913년경 제주의 인구는 19만 명 정도였다. 일제강점기와 4.3, 6.25, 그리고 경제성장기를 거치며 2010년 제주의 인구는 54만 명에 이른다. 1백여 년간 150% 정도 증가하는 사이에 늘 한국 인구의 약 1% 정도를 차지해서 제주를 '1%의 섬'으로 부르곤 했다. 그런데 2010년대 들어 이주자들이 늘면서 제주의 인구는 크게 늘어났고 2020년 67만 명으로 증가하는데 10년 사이에 13만 명이 늘어난 셈이다. 관광객도 쏟아지기 시작하여 2010년 757만 명에서 2019년 1528만 명으로 2배 증가했다. 올레길의 인기와 저가 항공기의 취항으로 제주는 관광지이자 '슬로우 라이프'를 지향하는 이들의 정착지로 변모한 것이다.

섬의 대지는 한정된 반면에 그 위에서 살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크게 늘면서 지난 10여 년간 제주도는 생태적으로 위기의 연속이었다. 녹지는 중산층의 전원주택과 타운하우스가 점유하곤 했고, 교통, 쓰레기, 물 부족 등으로 삶의 질은 나날이 나빠졌다. 일부에서는 관광객 증가, 부동산 활황이라는 경제적 호황기의 피할 수 없는 결과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으나 이 팽창의 시간이 서서히 지구온난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다행인 것은 코로나바이러스가 오자 자본과 사람의 유동성은 줄었고 더불어 좋아진 공기와 원활한 교통으로 인해 생태학적 위기 해결에 사람이 줄어드는 것 만한 것이 없다는 아픈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적 생존과 생태적 생존을 두고 충돌하는 모습은 제주만의 것은 아니다. 그동안 자본의 유입과 오버투어리즘, 쓰레기 증가와 삶의 질의 감소는 제주와 같은 곳에 종종 나타났다. 인간이 균락을 이루고 자본주의를 가동시키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반복되는 현상이다. 다만 제주도는 섬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문제가 더 분명하고 첨예하게 드러나곤 했으며 남쪽에 위치해 있기에 기후위기 시대를 먼저 경험하고 있을 뿐이다.

<제주33프로젝트>는 한반도 남단 북위 33도에 있는 섬 제주도의 생태를 지키려는 노력의 총량을 개괄적으로 살펴본 프로젝트이다. 그동안 제주에서 환경과 생태를 지키려는 사람들은 누구이고 어떻게 대처해왔을까? 오래 전부터 환경과 생태는 지속된 관심사였고 쓰레기 줍기 같은 단순한 활동부터 제주도개발특별법을 반대하며 자신의 몸을 불사른 양용찬의 분신까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활동과 노력이 계속되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도달한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누가 답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보고 싶었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일부는 직간접으로 인터뷰를 했으며, 일부는 자료조사를 통해 살펴보았다. 과학자들과 생태론자들이 인간의 물질적 남용 때문에 지구 온난화로 이어지며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시대가 임박했다고 경고하는 가운데 제주의 환경 문제에 민감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계속 물었다. 대부분은 인간 때문에 지구가 병들었고, 탄소를 줄이고 소비 위주의 삶을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 엄청난 기후변화로 인해 식량부족과 생태파괴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보았다. 반면에 자신들의 활동으로 인해 조금씩

사람들의 의식이 달라지고 있다고 자신했다. 인간이 생태에 관심을 가지려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나 가능하기에 먼저 경제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시각도 있었다. 반면에 혹자는 원래 지구가 빙하기의 연속이었다면서 지금은 잠시 간빙기에 있는 것이라며, 다시 도래할 빙하기를 피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 생각보다 다양한 단체들이 환경, 생태, 기후변화에 대한 연구와 교육을 많이 진행하고 있으며 교육의 대상자도 어린이부터 노년까지 다양했다. 그동안 오름, 곳자왈, 한라산 등 자연을 관리하는 법안들이 대두된 것은 이런 조사와 교육을 통해 여론이 형성되고 그 결과 입법으로 이어진 결과였다. <제주33프로젝트>가 진행되던 동안 가장 첨예한 문제는 제주 제2공항 찬반 문제였는데 결국 국토부가 인정한 여론조사에서 반대가 찬성보다 많이 나왔던 것도 제주의 NGO들이 얼마나 의식 개선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는지 보여준다. 그러나 여전히 찬성하는 사람들도 많아서 아직도 이 문제는 미해결 상태이다.

이번에 만난 사람들은 개인, 단체, 조직, 기구 등 여러 형식으로 저마다의 활동과 투쟁을 하고 있었다. 공적 자본의 지원으로 활동하거나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하는 곳, 또는 개인의 열정으로 이어가는 곳도 있었다. 바닷속 온난화를 추적하는 개인부터 일회용품과 화학약품 사용을 줄이려는 노력, 해안가 모래에서 '비치코밍' 을 하는 예술가, 기후변화 문제로 인해 가장 타격을 받을 이주노동자들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 결국 진지한 변화는 정치와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신념까지 다양했다. 대부분은 사람의 의식을 바꾸는 일에 힘들어 지쳐 있기도 했고, 일부는 제주에서 활동하다 떠난 이들도 있었다.

의식을 바꾸기 위한 노력은 전통적인 방법과 창의적인 방식을 모두 가동하고 있었다.가장 큰 부분은 교육프로그램이다. 자연환경해설사, 숲해설사, 유아숲지도사, 사회환경교육지도사 등 제도가 요구하는 자격증을 위한 교육도 있고, 유아부터 장년까지 시민들의 의식을 일깨우기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있다. 작은 아이디어들도 취하고 있다. 곳자왈에서 나무들을 관찰하며 나무지도를 그리기도 하고, 가게에 독특한 모금함을 만들어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도 하고, 친환경 제품을 판매하는 가게와 카페를 소개하는 지도 등 사람들의 호기심을 끌 만한 것들이면 거의 모두 시도되고 있었다.

생태적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수많은 이야기와 자료, 사례를 보고 들으면서 해결책보다는 계속 질문만 떠오른다.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의 생태를 위해 살아가는 윤리적인 행위들이 있었음에도 얼마나 더 노력해야 변화할 수 있을까? 생태적 인간이 되기 위해 적절한 경제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자본주의는 그러한 생태적 인간을 지속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까? 과연 식량과 물부족과 같은 밀접한 위기가 다가올 때 경제적 인간은 어떻게 생존할 것이며 얼마나 타인에게 윤리적일까? (양은희)

리서치

강술생 작가의 생태미술

강술생은 제주에서 활동하는 생태미술 작가이다. 자연에 의해 저절로 되는 것, 인위적이지만 자연스러워지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다. 자연과 인간의 유기적인 관계에 초점을 두고 회화, 설치, 생태미술 프로젝트 등 다양한 형식으로 작업하고 있다.

강 작가는 '집'이라는 개념을 볼 때도 다양하고 폭넓은 시각을 취한다. 사람이 사는 집을 마음의 집으로 보기도 하고 "내가 머무르는 집에서 지구공동체의 집으로 개념을 확장해야"한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인간이 있어야 할 자리에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위로의 '집'을 찾는가 하면 진정한 '제자리'를 알아차리는 <마음 생태의 집>을 구한다.

그래서 제주의 환경은 강 작가가 사색하는 곳이다. 들과 밭, 바다와 산에서 영감을 얻는다. 한라산 백록담에 올라 수많은 돌을 보고 돌멩이가 제자리에서 묵묵히 제 역할을 하는 모습에서 사람의 모습을 보기도 한다. 작가는 "큰 산을 이루고 있는 것은 수많은 작은 돌멩이다. 작은 생명, 작은 존재에 대한 생태적 사유를 바탕으로 내 마음의 위치를 찾는 여정"이 자신의 예술이라고 말한다.

주로 생태교육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해왔으며 <무당벌레 예술텃밭>은 도남동 밭 5백평에서 꽃과 식물을 키우며 자연과 같이 사는 방법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준 프로젝트로 2005년 시작되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강 작가는 종종 제주의 자연에서 나온 재료들을 가지고 설치작업을 하기도 한다. 중국연안에서 제주 바닷가로 물려온 갯생이모자반을 수거해서 말린 후 설치 작업에 활용하며 제주의 생태를 고민하는 예술을 보여주곤 했다. 최근 2020년 세계문화유산 축전에 선보인 우후석순(雨後石筍)은 당처물 동굴 주변 밭의 모래를 이용한 참여형 생태예술이다. 트럭으로 모래를 날라서 모래 석순을 만들고 작가와 참여자들은 동굴 속에 스며든 빗물 한 방울이 석순을 만들듯이 그 모래 석순에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는 춤을 추었다. 설치작업에 관객의 참여가 입혀지고 다시 비와 바람에 의해 모양이 변형되며 생겨나고 다시 사라지는 자연의 과정을 보여주었다. (이주희)



강술생, 우후석순(雨後石筍), 당처물빛의 모래, 관객참여형 퍼포먼스, 2020



강술생 작가의 <제주를 아름답게 하는 것들II-제주삼라만상>전 전경

곶자왈사람들

곶자왓은 제주말로 숲을 뜻하는 ‘곶’과 가시덤불을 뜻하는 ‘자왓’이 합쳐진 단어다. 화산활동으로 분출한 용암류가 만들어낸 암괴지대와 원시림의 숲과 덩굴 등의 식생이 보존되고 있어 독특한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다. 과거에는 경작이 불가능하여 버려진 땅으로 인식되었지만 현대에는 환경부 보호종 천량금을 비롯한 우리나라 양치식물의 80%가 곶자왓에 서식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생태계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제주의 허파로 소개되며 주요 관광 코스이기도 하다.

제주에서 ‘곶자왓’이 이슈가 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들어서이다. 2002년 지역의 한 언론에서 곶자왓에 대한 탐사기사가 나오기 시작했고 돌과 나무가 무성하여 쓸모없는 땅으로만 치부되던 곶자왓의 생태적 가치가 부각되었다.

당시 이 탐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곶자왓이 종종 개발계획으로 파괴되는 것을 막고 지속가능한 상태를 만들기 위해 ‘곶자왓사람들’을 만들었다. 2005년 순수 민간단체로 시작되어 지금까지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하고 있다. ‘곶자왓사람들’은 곶자왓을 파괴하는 개발 행위가 계획될 때마다 그 행위가 곶자왓의 생태에 미칠 영향과 결과를 조사하고 보존을 위한 지킴이 활동을 한다. 제주 전역의 곶자왓 훼손지와 생태계등급 조정 현장조사를 주로 진행하며 조사 결과를 언론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다. 2007년 전통문화, 인성교육 위탁 교육기관으로 지정되었고 곶자왓 전문해설사 양성교육, 방학생태학교, 어린이곶자왓여름생태학교(2013)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왔다.

더불어 사진 전시, 서명 운동, 기금 모음 등 해마다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작은 나무집 모양의 저금통을 만들어 도내의 가게에 배치하여 모금과 더불어 자신들의 활동을 알리고 있고, ‘에코증권’을 발행하기도 한다. 자연환경국민신탁 제도를 활용하여 모은 기금으로 곶자왓에 있는 소규모의 땅을 매입하기도 한다.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www.gotjawal.com>

이후 제주에는 곶자왓에 관심을 둔 단체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주요 단체 두 곳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첫번째로 제주 동쪽 조천읍에 위치한 ‘곶자왓작은학교’다. 2006년에 아우름지기 문용포와 14명의 자발적 학교지기가 마을을 모아 개교한 대안학교로 도심에서 벗어난 농어촌 지역 아이들의 돌봄 공백을 자연 속에서 함께 채워 나가고자 설립되었다. 계절별로 캠프 형식의 프로그램을 개최하고 있고 여행 프로그램, 아시아평화프로젝트 등을 진행한다.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후원만으로 운영되고 있다. 두번째는 곶자왓공유화재단이다. 시민들의 자발적 기부 및 기증운동을 통해 곶자왓을 공유화하기 위해 2007년 설립되었다. 취지에 공감하는 기업 및 시민들이 곶자왓의 토지를 매입해서 곶자왓공유화재단에 유증 혹은 기탁할 수 있다. 기부금으로 사유지 곶자왓을 매입하기도 하고 이 재단의 취지에 공감하는 기업 및 시민들이 제주의 곶자왓을 영구 공동 소유로 보존하겠다고 약속하는 “곶자왓보전협약”을 체결하기도 한다. 하지만 제주

난개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일부 대기업들 또한 이 운동에 동참하고 있어서 일부 시민들은 의구심을 품고 있기도 하다.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www.jejustrust.net> (박민희)



곶자왈 사람들의 저금통



곶자왈 탐방을 나선 교사들

기후변화 연극버스, 블록 BUS 타, 2018

제주도에는 관광객을 위한 ‘시티버스’가 운영 중이다. 서귀포의 880번 버스는 그런 ‘시티버스’중 하나로 외관은 일반버스와 달리 알록달록한 색으로 장식되어 있다. 880번 시티버스는 정규 버스 노선과 달리 관광객이 선호하는 관광지 중심의 노선을 달린다. 서귀포 오일시장에서 출발하여 천지연 폭포, 외돌개 등을 돌아 다시 오일시장으로 돌아오는 순환버스이다. 제주도의 저탄소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전기버사이며 1회 충전시 50km 정도 달릴 수 있어서 그에 맞게 노선이 정해졌고 배차 간격은 35분 정도이다.

환경부는 2018년 여름 8월6일-31일까지 하루 4번,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저탄소, 생활수칙을 알리기 위한 연극’을 바로 이 880번 버스에서 선보였다. 880번 버스가 전기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그리고 관광객이 몰리는 성수기에 버스에 탄 사람들에게 손쉽게 공연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후변화의切要한 현장 제주도를 고려한 선택이었다. 서귀포시로서도 관광객을 위한 콘텐츠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였다.

연극<블록BUSE타>의 내용은 5개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텀블러 아저씨, 처녀귀신, 버스 안내원, 욕쟁이 할머니, 신혼부부가 등장한다. 해수면 문제로 물질이 어려워진 해녀나 잘못된 쓰레기 배출로 오염된 굴을 먹고 죽은 처녀 귀신 등의 이야기이다. 연극의 목표는 탄소를 줄이기 위해 일회용품 사용 자제,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플라스틱 용품 사용 자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제주를 알리고 실천으로 이끄는 것이었다. 연극을 본 사람들은 너무 재미있어서 내려야 할 장소에서 내리지 못할 뻔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프로그램은 연극뿐만 아니라 저탄소 생활을 실천하는 모습이나 #저탄소라이프 해시태그를 걸어 SNS에 공유하면 텀블러를 경품으로 주는 행사도 함께 병행했다.

그동안 해외에서는 CCTA(Climate Change Theatre Action, 기후변화연극행동)이나 여러 공연자들이 기후위기 문제를 작품에 다루곤 했으나 국내에서는 두드러진 경우가 많지 않았다. <블록BUSE타>는 그런 연극계에 새로운 주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환경부의 후원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국내 연극계의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2018년 여름 한철만 진행되어 아쉬움을 남겼다. 연출 박연주, 작가 성화숙, 음악 김시울, 무대감독 박정현 그리고 여러 명의 배우가 참여했다. (양은희)



기후변화연극버스 캠페인 포스터와 공연정보



블록버스타 버스 / 관객과 직접 소통하며 연극을 펼치는 오라이 아가씨

김지환 작가의 업사이클링

김지환 작가는 제주 애월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업사이클링 작가이다. 지친 도시생활을 정리하고 2013년 아내와 두 자녀의 손을 잡고 제주시 애월읍 수산리에 터를 잡았다. 2014년의 어느 여름날, 김 작가는 바다에서 떠밀려온 유목에 마음을 빼앗겼다. 어디에서 온지 모를 바다쓰레기를 주워 시계나 조명 등 작품으로 만들기 시작했고 이후 삶에도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요즘은 제주에 떠밀려온 쓰레기에서 동화적 상상력을 펼치는 '바다쓰기'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환경오염, 특히 해양오염 문제에 대해 알리고 비치코밍 및 업사이클링 체험수업을 제공한다.

2017년 <제주, 바다를 닦다>전을 비롯해 비양도 폐가를 활용한 '비양도해양문화교육관'을 오픈하는 등 예술 창작활동과 환경교육을 병행, 제주 해양환경 문제를 널리 알려왔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바다쓰기'를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사업분야 : 바다쓰기는 버려진 쓰레기에서 동화적 상상력을 펼치는 그룹입니다.

바다쓰기 철학 : 바다쓰기는 떠밀려온 쓰레기들의 다양한 가능성과 가치를 찾아갑니다.

미션 : 모두가 일상 속 버려진 물건들로 동화적 상상력을 펼칠 수 있도록 합니다.

비전 : 순수한 상상력으로 버려진 것들의 새로운 가치를 찾습니다.

바다쓰기 사무실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437-6 (이주희)



제주 프리마켓에 참여하고 있는 바다쓰기



바다쓰기 작품들 올망졸망 아름다운 이웃과 정이 있는 마을을 제주 바다에서 떠밀려온 폐목으로 만들었습니다



김지환 작가의 작품들

꿈꾸는 고물상

‘꿈꾸는 고물상’은 방치되어 있던 서귀포 남원읍 하례리의 낡은 창고 2동을 폐자재와 버려진 고물을 이용하여 꾸며가는 창작공간으로 만들어낸 프로젝트이다. 낡아서 버려지는 것들에 예술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이들의 컨셉이다. 2012년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시도기획지원사업인 빈집프로젝트로 선정,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통해 버려진 공간에 새 생명을 부여하는 생태적 예술활동의 일환으로 출발하였다. ‘꿈꾸는 고물상’은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해온 이가영, 이치웅, 염정은, 유광국, 박종진, 이현태, 유희종이 힘을 합쳐 만들었다.

버려진 고물, 폐목 등을 재료 삼아 꾸며낸 공간에서 매달 다양한 문화 이벤트(고물을 모아 오면 추억의 뽕튀기로 교환해주는 등)를 통해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는 ‘고물데이’, 여러 중고 물건들이 새 주인을 만나는 ‘벼룩시장’, 고물을 재료로 해 만들어진 다양한 작품 전시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하례리 생태관광마을협의체에서 2015년부터 열여온 하례내장축제 ‘내창끝에 뭐 이싱고!’에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마을의 보물 효돈전을 새롭게 발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했으며, 2019년에는 고물상이 동지를 트고 있는 하례마을이 카페로 운영되던 공간을 내주어 ‘꿈꾸는 고물상’의 시즌2 격인 ‘우리마을해픈살롱’을 오픈하기도 했다. (김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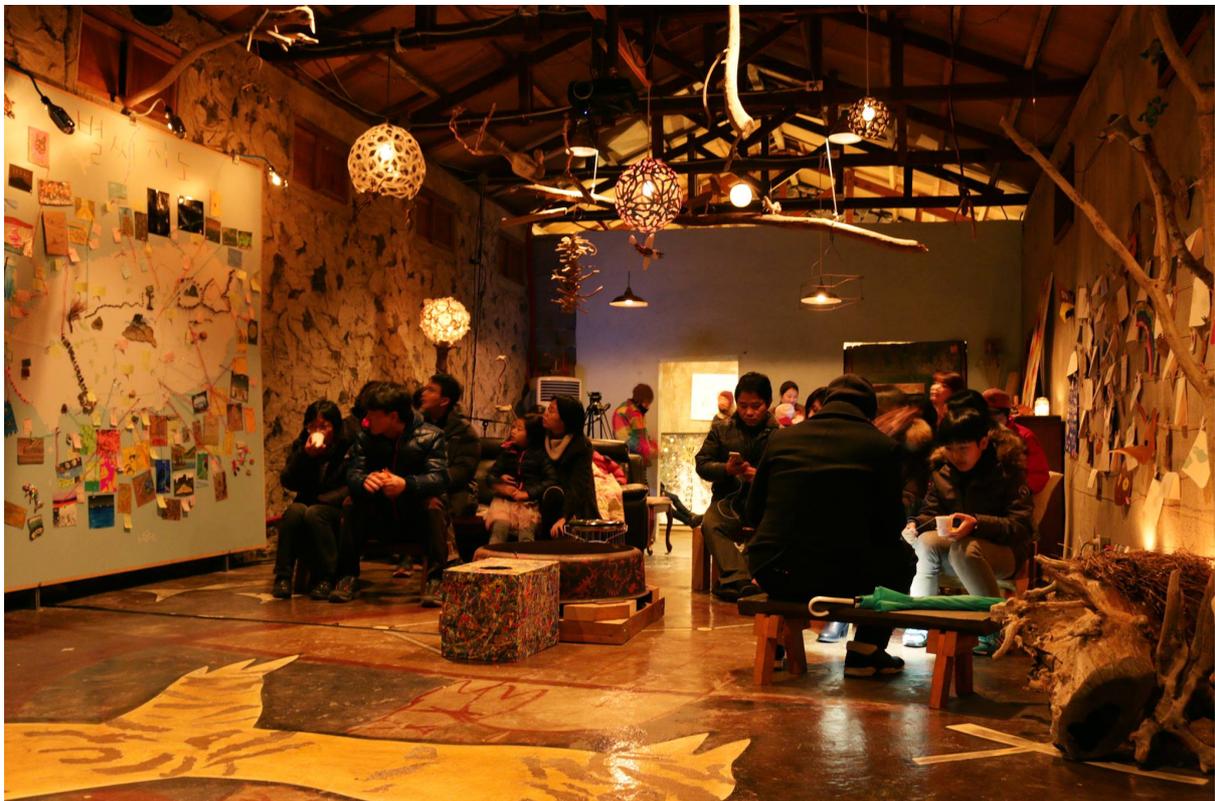


사진 출처: 꿈꾸는 고물상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harleyjunkshop/>

문화공간 양

문화공간 양(culturespaceyang.com)은 인간의 사회, 즉 인간의 생태에 친밀한 예술을 실천해왔다. 젊은 작가를 지원하고, 숨겨진 작가를 발굴하며, 지역주민들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공간을 표방하고 있다. 2013년 제주시 화북동(거로남 6길 13)에 개관하였으며 지금까지도 1) 예술로 사회에 말걸기, 2) 지역주민, 작가, 기획자가 서로 더불어 함께하기 3) 제주도 및 거로마을의 오랜 역사를 돌아보고 예술로 재해석하는 활동을 진행중이다.

‘양’은 사람을 부를 때 사용하는 제주도 방언이다. “저기요”와 같이 사람을 부를 때 쓰는 말이라서 “양~”하면 사람이 돌아본다고 한다. 즉 문화공간양은 “예술로 사회에 말을 거는 공간”이다. 그 외에도 양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예를 들어 한자 두 양(兩)을 떠올리면, 작가만이 아니라 지역주민, 기획자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활동한다는 의미를 가지며, 들보 양(梁)으로 보자면, 거로마을과 제주도의 오랜 역사를 주시하고 이를 현재와 예술로 연결하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문화공간 양이 위치한 거로마을은 600년에 이르는 긴 역사를 지닌 곳이다. 문화공간 양은 현재는 전시장, 강의실, 사무실로 이루어져 있지만 원래는 주택이었다. 전시공간 건물은 1950년대에 지어졌으며 “낮은 지붕과 좁은 공간이라는 제주 전통 가옥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4.3당시 불타버린 집을 피난을 갔던 마을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함께 돌을 쌓아서 만든 집”이라고 한다.

그동안 문화공간 양의 레지던시 작가들, 제주도 지역작가들 등 다양한 작가들이 이 공간에서 전시를 가졌으며, <분홍섬 공공체>(2014)처럼 4.3을 기리며 전통적인 공동체에 대한 개념이 희미해져가고 있는 현재에 우리가 꿈꿀 수 있는 공동체는 무엇인지 모색하는 전시도 있고, <이승수 개인전: 남겨진 오브제>(2017)은 인근 바닷가의 조선소 자리에서 발굴한 침묵 파편들을 모은 전시로 지역의 노동의 흔적을 보다듬은 전시였다. 이외에도 레지던시 운영, 토론회, 독서회 등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지역 공동체를 주제로, 지역 공동체의 삶에 스며드는 활동을 해왔다. (정필주)



문화공간 양 동네벽화 프로젝트



(좌) 2018년 4.3 추모 공연 / (우) 문화공간양 전경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

비자림로는 교래 입구 삼거리에서 출발해 사려니숲을 지나 구좌읍 평대초등학교까지 길게 이어지는 도로이다. 이 중 2.94km에 이르는 구간을 2차로에서 4차로로 넓히는 확장 포장 공사인 비자림로 사업은 2021년 6월 완공할 계획으로 2018년 8월 2일에 총 242억원의 공사비를 투입해 시작되었지만 닷새만인 8월 7일에 공사는 중단되었다. 이틀 만에 삼나무 915그루가 잘려나간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단체들은 적극적으로 공사 중단을 촉구하였고 언론 보도를 통해 전국적 반대 여론이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8월 10일, 제주도 부지사 안동우는 대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공사를 재개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같은 날 성산읍 이장협의회는 공사 재개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했고, 8월 13일 원희룡 도지사는 공사 추진의 뜻을 분명히 못박았다. 이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을 결성, 적극적 반대 활동을 시작하였다. 아직 공사 계획이 완전히 폐기된 것은 아니지만,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한 이들의 독자적이고 창의적인 생태 운동은 주목할 만 하다.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은 결성식과 다른 없는 퍼포먼스를 통해 8월 12일에 활동을 시작했다. 공사 현장으로 모여든 50여명의 시민들은 “나는 제주에 식생하는 ○○○입니다”라고 적은 종이를 들고 잘려나간 삼나무 밑동 옆에 썼고, “비자림로는 국민의 보물 제도 도정은 각성하라” 등 저마다의 문구를 만들어 지나가는 차량을 향해 피켓팅했다. 같은 장소 8월 19일에는 ‘비자림로에 대한 대책과 고민을 나누는 시민토론회/문화제’를 개최, 30일에는 제주도청 앞에서 ‘원희룡 도정 비자림로 생태도로에 대한 시민공청회 촉구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열었다. 9월 2일에는 시민들과 함께 다섯 시간 동안 ‘손바느질 현수막 만들기’를 진행했다. 노루, 천남성, 금새우란, 고사리 등 제주의 동식물을 비롯해 기형도 시인의 ‘숲으로 된 성벽’ 구절을 담은 현수막들은 요구 사항을 문구로 기재하는 여느 운동 현수막과는 확연히 달랐다. 또한, ‘비자림로 시민모니터링단’을 결성하고 ‘비자림로 삼나무 통신’이라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매일 비자림로의 상황을 알리기도 했다. 시민모니터링단은 공사구간에서 멸종위기종인 애기뿔쇠똥구리와 천연기념물 두견이 등을 발견해내고 공사 자체의 정당성을 추궁해내는 성과를 이루기도 했다.

최근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은 매주 일요일 숲에서 제주의 오름들과 생명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소모임을 진행하거나 제주도 도처와 육지에서 일어나는 환경 운동들 (제2공항 반대활동 등)과의 연계를 통해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 나가고 있다. (김해다)



우도동굴음악회

자연이 아름다운 제주에서 예술의 존재감을 키우기는 쉽지 않다. 우도동굴음악회는 자연의 구조를 활용한 친환경 음악회이다. 제주에서도 배를 타고 한번 더 바다를 건너야 하는 섬 속의 섬 우도에서 매해 10월마다 개최된다. 커다란 고래가 살았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행사 장소는 폭 20여미터, 천장의 높이는 15미터, 길이 100미터 정도에 이르는 해식동굴인 동안경굴(東岸鯨窟, 속칭 고래콧구멍)이다. 이 굴에는 썰물 때에만 출입이 가능하고 모래 사장을 건너 용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바닷길을 지나야 비로소 닿을 수 있다. 동굴은 “공간적 기능태로서의 ‘극장’과 ‘마당’이라는 요소를 함께 갖추고 있고, 시간적 기능태로서 ‘밤’과 ‘낮’을 공유하고 있다.”(현행복, 「동굴의 자연음향 효과, 그리고 음악회장 운영사례」, 『한국동굴학회지』, 2009) 낮에도 밤에도 언제나 어둡기 때문에 한 줄기 빛이 소중하며 무대 장치로서 큰 역할을 한다.

동굴음악회는 1997년 9월 3일 <동굴과 소리의 만남>이라는 제목을 처음 개최되었다.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현행복은 1992년 <동굴소리연구회> 모임을 결성한 이후 10여년 간 제주의 용암동굴을 찾아다니며 소리를 내는 실험을 진행했다. 그는 동굴 내부를 구성하고 있는 화산폭발에 의한 다공질 현무암이 소리의 반향을 과장하지 않고 적당한 양만 배출시켜주는 것을 확인했다. 문화공간으로서 적합성, 계절과 상관없는 온도 유지, 별도의 인위적 장치없이 훌륭한 음향을 접할 수 있다는 요소들에 착안하여 동굴음악회를 계획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후 현장 녹음으로 제작된 음반을 발매하기도 했고,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만장굴에서 동굴음악회를 개최(2000~2001)하기도 했다. 1000여명의 관객들이 찾을 정도로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았다. 주로 10월에 행사가 개최되는 데 그 이유는 바람의 영향을 고려한 것이다. (박민희)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Asia Climate Change Education Center)

기후변화에 관련된 국제협력은 1990년대부터 그 필요성이 언급되곤 했다. 1992년 브라질에서 열린 회의에서 '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되었고 각 국가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포함하여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였다. 그러나 탄소 배출을 강제하지 못하고 상징적인 제스처에 머무르자 1997년 교토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교토 의정서(Kyoto Protocol)'가 채택되어 온실 가스 배출을 축소하지 않는 국가에 비관세 혜택을 줄일 수 있는 장치를 만들었다. 그러나 정작 이 협약이 발효된 것은 2005년이다. 어쨌든 이 협정으로 인해 이산화탄소, 메테인, 아산화질소, 과플루오린화탄소, 수소불화탄소, 육불화황 등 6개의 가스가 감축대상이 되었다.

한국은 개발도상국으로 이 협약을 지킬 의무는 없었으나 OECD 국가 중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9위를 차지하여 국제적으로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런 와중에 미국, 중국, 인도, 캐나다, 일본, 러시아 등이 차례로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를 선언하며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에서 이 국제협약이 회자되고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이에 관련된 정보를 공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007년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UCLG)가 제주에서 총회를 열었을 때 아시아지역의 기후변화교육센터를 제주에 설치하자는 아이디어가 제시되었고, 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ICLEI), 환경부와 제주도가 이에 호응하게 된다.

이즈음 제주도는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WCC)'를 유치하고자 준비하기 시작했다. 제주도는 유네스코가 수여하는 여러 타이틀에 도전하며 지방정부로서의 역량을 보여주하고자 했는데, 결과적으로 2002년 생물권보전지역, 2007년 세계자연유산, 2010년 세계지질공원 등 3개의 타이틀을 따냈고, 2009년과 2016년에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칠머리당 영등굿과 해녀가 선정되며 이런 타이틀로 제주의 관광가치를 높이려고 했다. 그런 가운데 세계자연보전연맹이 4년마다 개최하는 총회를 제주에 열어 '환경'을 제주의 가치로 알리려는 노력도 하게 된다.

특히 환경부가 2007년 제주도를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로 지정한 후 그에 부응하기 위한 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세계자연보전총회를 계기로 그 유치과정에서 세계자연보전연맹, 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와 MOU를 맺으며 상징적으로 제주의 환경인식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드디어 2011년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에 위탁하는 형식으로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되기 시작했다. 그동안 시민교육, 전문교육을 통해 기후변화에 관련되어 먹거리, 천연제품 사용, 쓰레기 자원화, 바다의 변화, 환경 운동 등에 대한 지식을 널리 알리고 있다. 특히 해수면 상승을 첨예하게 보여주는 안덕면 사계리의 용머리해안에 '기후변화홍보관'을 만들어 현장교육을 진행하기도 한다. <http://www.jeju-accec.com> (양은희)



해녀 사진작가 유용예

유용예는 사진작가이자 제주 가파도의 해녀다. IT 업계에서 일하며 높은 연봉과 안락한 삶을 누리던 그는 그저 바다가 보고 싶은 마음에 가파도로 향했다. 그 곳에서 해녀를 만났고, 해녀가 되었다. 해녀 학교를 졸업하고 가파도 어촌계에 등록된 해녀로 활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물질하지 않을 때에는 가파도에서의 생활을 기록하고 섬의 구석구석을 지도로 그렸다. 그래서, 그가 찍은 해녀 사진은 남다르다. ‘아웃사이더’가 아니라 ‘인사이더’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해녀의 삶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그의 사진 담긴 해녀는 고된 노동을 해야만 하는 늙은 여성이 기보다는 당당하게 삶을 꾸려나가는 작은 거인으로 등장한다. 바다도, 여행지가 아니라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의 삶의 터전으로 나타난다. 기후 위기를 비롯한 생태 위기가 자연을 인간의 의지에 따라 개발 가능한 대상으로 취급해왔던 탓이라면, 바다와 해녀를 피사체가 아니라 삶 그 자체로 느끼는 해녀-사진작가 유용예가 그려나가고 있는 삶의 지도는 분명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최근에 그는 그간 찍었던 사진들과 가파도 생활사를 기록한 출판물을 볼 수 있는 가파도 사진관을 오픈했다. 또한, 제주문화예술재단 해녀문화 우수예술창작지원사업과 서귀포 문화도시 조성사업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할망바다>전과 <물벗(The Haenyeo Between Ocean)>전을 개최하거나 나잡기술, 신앙, 노래, 작업 도구와 복식 문화 등 가파도의 해녀문화를 보존하고 전승하는 해녀 워크숍 <가파도 해녀프로젝트 홈커밍>을 진행하는 등 해녀-사진작가로서 활발하게 활동해오고 있다. (김해다)



유용예 사진전 <할망바다>전 전시회 포스터



유용예 사진전 <낮은 섬 가파도 할망바다> 전시회 모습

재주도좋아

‘재주도좋아’(제주시 귀덕6길 192, jaejudojoa.com)는 쓰레기로 오염된 제주바다라는 사회문제를 문화예술활동으로 접근한다. “비치코밍(beachcombing)을 통해 바다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모임”을 표방하는데, 비치코밍이란 “바다 위를 부유하다 해안선과 조류의 방향을 따라 해변에 표류하게 된 물건을 줍는 행위”를 말한다. “바라던 제주 바다에 왔으니 예술가들과 함께 비치코머되어, 악기를 만들고, 노래를 부르고, 파도를 그리고, 춤추자”라고 재주도좋아는 말한다. 이른바 우리 모두가 ‘비치코머’가 되자는 것이다. “어린 시절 바닷가의 조개껍데기나 유리조각을 줍던” 그때를 떠올려보면 쉬울 것이다. 바다의 생존과 우리 삶의 생존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기 보다는 “끊임없이 밀려와 쌓여가는 대책 없는 바다쓰레기 문제를 예술로 함께 해결해보고자”하는 시도가 바로 재주도좋아가 하는 일이다.

재주도좋아는 바다와 비치코밍을 매개로 다양한 예술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해오고 있다. 프로그램 참여대상은 “제주도 바다를 사랑하는 누구나”이며 프로그램의 형식은 자유로운 편이다. 해안가에서 주운 나무, 플라스틱 등의 쓰레기를 가지고 함께 악기를 만들기도 하고, 공예품을 만들기도 한다. 연주를 감상하는 콘서트도 열리기도 하고, 현대 무용가와 함께하는 무용 프로그램이 열리기도 한다. 비치코밍을 통해 얻은 재료로 그림을 그리기도 한다. 또 바다쓰레기 조형물, 공예품으로 전시회가 개최되었고, 포럼, 영상제, 레지던시, 플리마켓 등도 열렸다.

코로나로 인해 여러 활동들이 위축되었을 때도 비치코밍과 예술활동의 결합은 멈추지 않았는데, 2020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문화예술재단, 한국문화예술위의 후원으로 <2020 바라던 바다: 거.리.두.며. 비.치.코.밍.>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2014년 이후 매년 5월 바다의 날에 이어져오는 비치코밍 캠페인”인 ‘바라던 바다’는 바다정화활동과 워크숍 등을 통해 “바다쓰레기 문제에 예술적 방법으로 동참하는 기회”를 만들고자 한다. 2020년에는 10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개최됐다. 이해선, 정은혜의 전시, 전찬준, 윤영배, 시와의 공연, 김정도(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홍수열(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 이주은(알맹상점 공동대표)의 강연, 세간, 핸드메이드라이프, 정은혜, 이해선, 세간, 재주도좋아의 워크숍이 있었다.

이렇게 특정한 형식으로 스스로를 규정짓지 않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최하며 계속 뜻을 이어나가는 것은 아마도 재주도좋아가 “예술에 비치코밍을 결합하여, 쓰레기를 줍는 행위를 문화운동 흐름으로 정착”시키는 것을 표방하기 때문인 듯하다. 실제로 이들은 “제주를 찾는 모든 사람들이 제주 바다를 소비의 대상이 아닌, 아끼고 지켜야 될 대상으로 인지하도록 돕고 싶다”고 말하고 있다.

SNS 계정보로는 페이스북([facebook.com/jaejudojoa](https://www.facebook.com/jaejudojoa)), 인스타그램(@jaejudojoa) 이 있다. (정필주)



봉성리에 있던 제주도좋아 작업실



출처: 제주도좋아 페이스북 페이지 facebook.com/jaejudojo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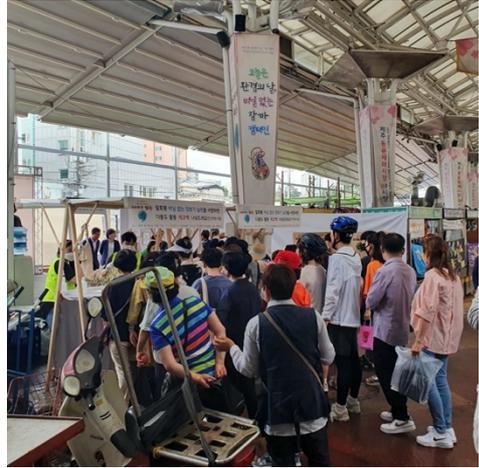
제주특별자치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 협의회의 기초는 1992년 브라질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지방의제21(Local Agenda21)'에서 출발한다. 보통 '어젠다 21'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 의제는 지구의 자연자원 보전과 관리, 그리고 빈곤퇴치 및 건강을 위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역의 참여와 국제적 협력과 거버넌스를 명시한 행동지침이다. 그중에서도 여성, 청소년, 농민, NGO 단체들, 지방정부, 노동자와 노동조합, 기업, 과학기술계, 원주민 등의 그룹의 참여를 이끌어 지속가능한 발전의 중요성을 알리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후 UN은 각국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립하고 추진하라고 권고하게 된다. 한국에서는 '지방의제21'을 지역차원에서 활성화하기 1995년 '녹색도시부산 21'이 발표되어 시작되었으며 이에 다른 지역에도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기 시작했으며 2000년에는 대통령자문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2004년 '지방의제21 추진기구 설치 운영 및 지원조례 표준준칙'을 제정하였고 2007년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공포하였다.

제주도는 1998년 '늘푸른제주21추진협의회'를 창립했으며, 1999년에는 보고서 「영원히 푸른 섬, 제주」가 발간되었으며 <제주환경선언>이 발표된다. 2000년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가 창립되자 제주도도 지방의제21제주지역광역협의회를 구성했고 2015년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했다. 이 협의회는 지역별로 일종의 거버넌스 기구로 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아 환경정책을 연구하고 지역의 여러 환경단체들의 네트워크를 가동시키기도 한다. 환경정책, 자연환경, 사회환경, 경제환경, 여성생활환경 등 5개의 분과를 두고 활동하고 있으며, 재활용운동, '그린스타트 녹색생활 경연대회', 환경전문가 교육, 생명텃밭 운영, 빗물활용사업, 성인지 감수성 문화운동 등을 전개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2010년부터 프로그램 속에 기후교육을 포함하기 시작했으며, 2019년에는 '기후변화적응위크숍'을 열기 시작하였고, 2020년부터는 기후변화를 알리고자 제주의 기후변화와 에너지, 생활폐기물과 자원순환, 미세먼지 등을 주제로 한 교재시리즈를 발간했다. (양은희)



(위) 2020년 선홍 동백동산 숲지도 / (아래) 2020 제주 바람지도

제주도청 앞 천막촌

제주의 행정본부라 할 수 있는 도청 앞에는 천막들이 즐비하다. 일명 '제주도청 앞 천막촌'이다. 이 천막촌은 2018년 세워지기 시작하여 지난 수년간 제주 제2공항문제, 생태문제 등 제주도정의 정책과 방향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천막 하나씩 더하면서 일종의 마을을 이루게 된다. 한때 철거되기도 했으나 야생초처럼 다시 세워져 정책을 바꾸라는 목소리를 높이곤 한다. ‘

현재 뉴스 포털 프레시안에는 “제주도청 앞 천막촌 사람들 이야기”라는 이름으로 제주 2공항 사업에 대한 다양한 기록들이 남아있다. 그중 일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출처: 프레시안 (www.pressian.com)

“제주도청앞 천막촌은 제주 제2공항 건설을 막아내고자 2018년 끝자락 제주도청 맞은편 길가에 천막을 치고 모여든 사람들의 기이한 마을이다. 길에 천막을 세운 지 700일에 다가가는 나날. 그러나 사람들은 아주 오래 전부터 이곳에 있었고, 실은 도처에 있었다. 타자화의 역사에 내몰려 오래전에는 감옥이 된 섬에서 살고 또 죽었고, 이윽고 관광산업에 동원되어 미소를 팔고 손을 흔들어야 했다. 착취는 점점 거대해져 쓰레기 똥물 다 받아내고도 감사해야 하는 섬이 되었다.”

“이제 사람들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자신의 현실을 받아들였다. 이 서러운 추위와 열사가 어렵게 얻은 기회라는 걸 알았다. 그렇게 첫 겨울이 가고 봄, 여름, 가을, 다시 겨울,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그렇게 700일. 장기농성하는 도청앞 천막촌 사람들은 매일 아침, 맞은편 제주도청을 응시하며 차 지나는 도로를 목소리로 가로질렀다. 그 중 네 번의 날의 네 차례 선언을 기록으로 남긴다. 제주의 생명과 평화와 정의를 염원하는 이들에게 가닿길 바라며.”

“이것은 학살입니다. 제주는 지금 거대한 학살 앞에 서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평화가, 공명정대한 절차가, 인간이, 못 생명, 그리하여 마침내 미래가 학살되고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는 이곳에서 한 번도 허락된 적 없습니다. 평화로운 피케팅은 늘 밀려나고, 막히고, 고착되었습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떠밀렸습니다. 부당한 항의는 폭력으로 둔감했고 죽지 못해 곡기를 끊고도 조롱당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사람 하나 죽는 것쯤은 눈 하나 까딱 않는 제주도청에 있습니다. 소통하겠다는 그 도민의 목소리를 귓등으로도 안 듣는 그 사람 앞에 섰습니다. 더는 방법이 없고, 더는 밀려날 곳이 없고, 더는 시간이 없어서 추운 밤을 새웁니다. 지금은 이렇게 싸워야 한다는 절박감으로, 사라진 미래에 대해 두려움으로, 모여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유일한 용기이며, 목적입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제주는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는 다시 묻습니다. 제주는 누구의 것입니까?”

(이주희)



2019년 천막촌의 모습



제주도청앞 천막촌 사람들은 2018년 12월부터 매일 제주도청 앞에서 제2공항 문제를 비롯한 제주의 안전한 미래에 관해 공공의 역할을 주문하며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엄문희

제주돌문화공원

2006년 문을 연 제주돌문화공원(jeju.go.kr/jejustonepark)은 제주도민의 생활과 정신의 뿌리가 되어온 돌문화를 테마로 하고 있다. 화산섬 제주도에 흔한 현무암과 같이 살아온 제주사람들의 흔적, 자연의 흔적을 볼 수 있는 공원이다. 제주 섬을 창조한 여신으로 전해져 오는 설문대할망과 오백장군 설화에 기초하여 세워졌으며, 제주도의 형성과정과 제주도민의 삶의 자취를 돌이라는 주제로 풀어내고 있다.

설문대할망 설화에 따르면, 먼 옛날 세상이 만들어질 때, 땅과 바다가 생기고, 망망대해 속에서 솟아오른 거대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설문대할망이다. 할망은 “한라산을 베개 삼고 누워 두 다리는 관탈섬에 걸쳐 낮잠”을 자기도 했을 만큼 거대했기에 치마폭에 화산재와 돌덩이를 담아 제주도를 만들 수 있었다. 할망은 360여개의 오름, 한라산, 산방산 등을 만들어내며 이른바 돌의 거장으로서의 면모를 보였다. 제주돌문화공원은 이러한 설문대할망을 일컬어 “제주의 돌 하나하나가 곧 설문대할망의 분신”과도 같다고 말한다.

오백장군은 한라산 서남쪽 산 중턱의 ‘영실’이라는 명승지의 기암절벽을 일컫는다. 설화에 의하면, 오백장군은 설문대할망이 거느리던 아들들인데, 아들들이 먹을 죽을 끓이던 할망은 그만 죽 솥에 빠져 죽고 말았다. 나중에 돌아온 아들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죽을 먹었다 한다. 나중에 어머니의 뼈를 발견하고서 어머니의 죽음을 알게된 아들들은 차귀섬으로 가 바위가 되어 굳어져버렸다는 것이 오백장군 이야기이다. 설문대할망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주돌문화공원은 2007년부터 설문대할망페스티벌을 개최해오고 있다.

제주돌문화공원은 30만평에 야외전시장, 제주돌박물관, 오백장군 갤러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대할망을 상징한 용암석, 선사, 탐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의 돌문화, 제주의 민간신앙과 제주의 동자석, 제주 전통초기마을 등을 볼 수 있다. 친자연적으로 살았던 오래전 제주의 문화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제주다운 공간이라고 예찬하는 곳이기도 하다. (정필주)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환경운동연합의 기원은 1990년대 초반으로 돌아간다.

1991년 제주환경에 관심을 가진 청년 10여명이 한라산, 오름, 해안을 돌아다니는 모임을 가지기 시작했고 파괴되는 환경을 지켜볼 수만 없어서 제주 지역 최초의 환경단체인 '푸른 이어도의 사람들'(공동대표 김정기, 현복자)을 만들었다. '푸른 이어도의 사람들'은 1994년 12월 제주시 이도동 노동복지회관에서 출범하여 '모든 생명체들이 조화롭게 살 수 있는 생태적 지역공동체의 건설을 목표로 환경을 보존하고 균형있는 개발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목표로 환경문제 조사연구 및 여러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20-30대가 주를 이루는 회원들은 일요일마다 돌아다니며 활동을 했고 어린이 환경교실, 하천 및 쓰레기 매립장 조사, 쓰레기 분리수거 모니터링, 환경지도 제작, 환경신문 발간 등 많은 활동을 했다.

그러던 중 1993년 서울, 대구 등 전국의 환경운동단체들이 모인 '환경운동연합'이 등장하여 범지구적인 환경위기에 공동으로 대처하려는 움직임이 일게 된다. 이에 '푸른 이어도의 사람들'이 제주환경운동연합으로 재창립 되었다. 전국적 단체의 일부가 되면서 정보 및 이슈 공유가 용이하게 되었고 같은 지향점을 가진 공동체가 커지면서 보다 활발하게 활동하게 된다.

1999년부터 <제주의 환경을 말하다>를 발간하며 제주환경문제를 분석하여 제시하기 시작했고, 이후 제주제2공항, 해안사구 파괴,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등 시급한 문제들을 알리며 참여를 촉구하게 된다. 현재 가장 안정적이면서도 지속적인 활동을 펴는 환경단체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동안 진행했던 활동들은 조사 연구활동부터 감시와 홍보까지 다양하다. 마을공동목장 생태계 조사를 진행했고 '제주환경 10대 뉴스'를 발표하며 개발사업, 습골 발견, 정수장 유출 사태, 비자림로 확장공사, 꽃자왈을 파괴하는 개발사업, 신항만 사업 등 도민의 주의를 촉구하는 뉴스를 찾아냈으며 사업가들의 개발계획이 진행되면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진행되었는지 모니터링 하며 성명서 등을 발표했다. 2020년 초에는 오등봉 공원, 중부공원의 민간공원 특례개발에 관련된 환경영향평가의 부실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1회용 플라스틱 용기 제한을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위해 여론을 형성해 왔고, 해안쓰레기 정화 및 브랜드 조사를 통해 해안쓰레기 다수가 삼다수라는 것을 알리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기도 했다.

자연환경보전법이 제대로 이행되는 지 감시와 홍보를 하고 있으며 '꽃자왈사람들' 등 타 환경단체와 연대하여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도 한다. 사회적 생태 문제에도 적극적 참여하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또한 미래 세대를 위한 '원탁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기후위기 문제를 알리고 있다. (양은희)



탐나라공화국

제주도 한림읍 정물오름 앞에 위치한 '탐나라공화국'은 조그마한 남이섬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었던 강우현 대표의 작품이다. 제주의 옛 이름 '탐라'와 발음이 비슷한 '탐나다'와 '공화국'을 합친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이곳은 초소형국가체(Micronation)를 지향하는 '나라'이다. 2014년 남이섬에서 제주로 내려와 제 2의 남이섬을 건설하기 시작한 그는 2019년 5월 드디어 탐나라공화국을 개국했다. 입구에는 출입국 관리소를 세워 여권을 발급받아야만 공화국 안쪽을 돌아보게 하는 등 제법 국가의 면모를 갖추어 놓았다. (여권 발급비는 헌책으로도 받는다.)

농업용수나 수돗물을 이용하기 어려운 곳에 위치한 공화국에는 버려지는 빗물을 활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80여개에 달하는 인공호수가 있다. 빗물전문가 한무영 박사가 함께 참여했고, 빗물 관련 세미나도 열기도 했다. 그렇게 만들어진 크고 작은 호수들은 산책로가 되었고, 돌을 파내 만든 길과 돌담으로 쌓은 성도 만들었다. 오랫동안 리사이클 운동을 해온 그의 철학 덕분에 버려진 맨홀을 쌓아 만든 정문부터 국기게양대나 바닥에 깔린 보도 블록, 화분과 철근 울타리, 작은 팻말까지도 모두 어디선가 주워온 물건들로 만들어졌다. 2018년에는 공화국 내에 재생에너지 체험 공간을 만들기 위해 한국동서발전과 '제주하늘빛 문화발전 협약'을 체결했고, 2019년에는 전 세계 30개국 80여명의 예술가들이 생태를 주제로 한 퍼포먼스, 설치미술, 춤과 음악 공연 등을 선보이는 제 18회 제주국제실험예술제를 유치하기도 했다.

공화국 한편에는 노자예술관이 지어져 있다. 아무것도 없던 땅 무無에서 유有를 만들어내기 위해 직접 길도를 파던 강우현 대표는 노자의 도덕경을 떠올렸고, 무턱대고 노자의 고향 중국 허난성에 찾아갔다. 중국 허난성 문화청은 노자 도서와 허난성의 항아리며 도자기 파편들을 기증했고, 여기에 헌책 30여만권을 모아 헌책 축제도 열고, 노자예술관을 만들기도 했다. (김해다)

탐나라공화국 공식 홈페이지: <https://jejutamnara.modoo.at/>



탐나라공화국_영산봉_출처_공식홈페이지

인터뷰



1. 언제, 어떤 계기로 제주의 환경/생태문제에 관심을 두게 되었는지요?

4.3에 대한 관심이 생명과 자연에 대한 관심으로 연결되었던 것 같다. 90년대 초, 탐라미술인협회 창립에 참여하며 4.3을 주제로 전시를 열었다. 사람이 사람을 학살하는 무자비함이 우리가 자연을 대하는 태도와도 그리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 않았다. 2001년도에는 아트스페이스씨 안혜경 대표가 기획한 제주 습지에 관한 생태 전시 <목긴청개구리>에 참여했다. 강요배, 홍진숙, 김세진, 윤동천, 임영길, 임옥상, 정원철, 정상곤, 임정희 등 여러 작가와 선생님들과 함께 생태적 시각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그 전시를 위해 하도리에 있는 철새도래지를 돌아다니며 죽은 새들을 관찰했다. 자신들이 있던 곳으로 돌아가야 하는 새들이 농약을 주워 먹고 죽어버리거나 해초인 줄 알고 비닐을 먹고 죽어버리거나 했다. 그들을 관찰하며 인간이 우주의 존재방식을 위반하는 데 얼마나 익숙해져 있는지에 대해 생각했다.

2. 그동안 어떤 일을 하셨는지요?

비자림로 확장공사를 반대하는 시민운동에 참여했다. 인간보다 훨씬 더 오래 산 삼나무 2천 그루가 베어져 나간

현장에서 한 작업들로 원래는 개인전을 할 생각이었으나 시민운동으로 확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나무 두 그루를 심으면 내 작품 한 개를 주겠다고 소문을 냈다. 소문을 듣고 100명이 오면 200그루의 새 나무를 심는 셈이 되겠다는 단순한 계산에서였다. 그런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왔고, 호응도 좋았다. 한 작가는 나뭇가지로 모하이상을 만들어 어린이들을 주기도 했다. 그때 시민과 예술가들이 함께 했던 작품들을 모아 아트스페이스씨에서 <낭싱그레가게>라는 전시를 열기도 했다. 제주 제2공항 반대 운동의 일환으로 난산리에서 강동균, 고경화, 김소영, 김선, 카이아 카레, 최성희 등 작가들과 함께 그래피티 작업을 하기도 했다.

3. 활동하기 시작한 이전과 지금까지의 과정을 뒤돌아 볼 때 제주의 상황이 나아졌다거나 크게 변화한 것이 있는지요?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관광산업에 치중된 산업 구조가 제주다움을 점점 집어삼키고 있다. 비자림로 확장 공사와 같은 벌채나 채굴 뿐만 아니라, 농지도 없어져간다. 예술가로서 세상을 바꾸겠다는 거창한 꿈을 꾸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상황을 환기시킬 수 있는 정도만 된다면 좋겠다.

4. 지금의 기후위기를 해결하게 위해 가장 절실하게 그리고 시급하게 제주에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과잉소비만 하지 않아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다. 우리는 물질적으로 이미 풍요로운 세상에 살고 있다. 일상을 검소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깊이 아는 것이야말로 생태적 삶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사상을 잘 닦고 있는 말이 평원부족 인디언들의 인사말인 '미타쿠에 오야신'이다. 인간은 이 거미줄같이 서로 연결된 삶을 짜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도 그 거미줄의 한 올에 불과하다는 것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제주에서 1차 산업을 재발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차 산업이라고 하면 농업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농사일부터 시작해서 생산된 작물들을 가공하고, 필요한 물건들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자급자족이 가능한 공동체적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5. 현재의 상황을 바꾸지 못하고 지금처럼 살아가게 되면 제주도의 생태와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랫돌 빼고 윗돌 이는 것이 난개발이다. 관광산업이 제주의 생태를 좌지우지 하는 한, 제주의 생태와 미래는 더 망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1. 언제, 어떤 계기로 제주의 환경/생태문제에 관심을 두게 되었는지요?

저는 독서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다양한 책을 읽고 있는데 어느 날 '짚 한 오라기의 혁명'(후쿠오카 마사노부 지)이라는 책을 만났습니다. 이 책 한 권을 통해 노자와 장자, 그리고 종교와 자연과 인생과 환경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정말 다른 많은 분야의 책들과 접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 브라질 꾸리치바시의 경우나 부탄이라는 나라의 국민 행복에 대한 노력(전 국민 행복지수 조사) 등 세계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환경에 대한 여러 노력들을 알게 됐습니다. 지금 제주는 환경적으로 대단히 개발에 대한 문제가 많은 지역으로 전락했지만 아직도 늦지는 않았습니다. 철학이 있는 미래지향적 환경정책이 구체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2. 그동안 어떤 일을 하셨는지요?

저는 제주에서 태어나 고등학교까지 살다가 서울로 올라가 30년을 살다 제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거의 매년 제주에 내려오기는 했지만 저도 제주를 깊숙이 볼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지요. 그러다 제주에 살게 되면서 부동산을 공부하게 됐고 제주도 전역을 많이 돌아 다녔습니다. 저는 제주도가 이렇게 아름다운 곳인 줄을 전혀 모르고 살았다는 것이 몹시 부끄러웠습니다. 당시는 2002년 경이었는데요. 그때 딱 하나 제주환경을 걱정시키는 문제로 해안가 곳곳에 만들어진 육상양식장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청소한 물이건 뭐건 그대로 바다로 흘러보내고 있었고 이같은 행태는 해안가의 부영양화를 초래해 곧 바다가 황폐화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을 통해 이를 지적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제주환경일보를 창간한 것인데, 벌써 올해로 만 12년째가 되었네요. 그동안 오름이나 계곡 등에 대한 문제나 무분별한 개발에 대한 고발도 많이 해 왔고 개선도 많이 시켰습니다만 아직 할 일은 많고 역부족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런 작은 노력을 통해 무법천지였던 신촌의 대섬 지역을 원상 복구시키도록 했고 제2공항 문제나 남원

예촌망 지역 등 제주를 망치는 개발을 막기 위해 여전히 관심을 갖고 환경파수대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3. 활동하기 시작한 이전과 지금까지의 과정을 뒤돌아 볼 때 제주의 상황이 나아졌거나 크게 변화한 것이 있는지요?

제가 처음 제주지역 환경언론을 창립할 때까지 제주의 언론에서는 환경에 대한 관심이 그리 많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시 제주환경 문제는 그렇게 심각할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언론을 시작한 후 제주도가 유네스코 자연유산 3관왕을 거쳐 세계지질공원 등 환경4관왕과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등에 힘 입어 제주도가 단숨에 세계적인 환경지역으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그 이후 중국에서의 제주에 대한 투자가 붐을 이루기 시작했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제주 이주가 시작되면서 개발천국이 됐지요. 불과 지난 수 년간 땅값은 거의 수십배가 올랐고 이제 제주도 어느 곳도 평안한 곳이 없을 정도로 평화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더욱 우리를 슬프게 만드는 것은 지난 세월 우리가 어디서나 마음 놓고 마실수 있었던 용천수의 대부분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물도 제대로 못 마시는 지역이 돼 버렸다는 것, 그것이 가장 슬픈 일입니다.

4. 지금의 기후위기를 해결하게 위해 가장 절실하게 그리고 시급하게 제주에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제주도는 도지사가 모든 권한을 갖는 특별자치도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도지사의 철학이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도지사가 개발주의자면 제주도는 어느 곳도 성한 곳이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적어도 제주도의 천년을 내다보는 환경에 대한 비전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선출되자마자 전국에서 유일하게 상징적으로 남아있던 환경부지사 체제를 없애고 정무부지사로 조직을 개편해 버렸습니다. 저는 그 이후 제주도청 기자실 출입을 포기했습니다만..아마 원 지사가 아무리 앞으로 일을 잘 한다 해도 환경부지사를 없앤 일은 두고두고 비판받을 일이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제주환경을 위해 환경부지사 직제를 부활해야 합니다. 그래서 행정과 환경을 나눠 투톱으로 정책을 펼쳐야 좋은 도지사로 남을 것이라는 기대를 합니다. 환경문제에 대한 해결을 잘한 기관이나 개인에 대한 포상을 넓히면 제주의 미래를 위해 각종 좋은 정책들이 쏟아질 것으로 봅니다.

5. 현재의 상황을 바꾸지 못하고 지금처럼 살아가게 되면 제주도의 생태와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지금 이대로 성산지역에 제2 공항이 만들어지고 제주신항이 건설되는 등 개발계획을 멈추지 않으면 아마 제주도는 죽음의 섬 또는 쓰레기섬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주도는 섬이라는 한계가 있는 지역입니다. 마음놓고 관광객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제주에 인구가 늘면서 지금도 쓰레기가 넘쳐납니다. 상하수도 모두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급량과 처리량을 늘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줄여도 줄여도 남는 게 쓰레기 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주도민만 노력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바다는 아름답지만 속은 이미 다 썩어가고

있습니다. 농사용으로 쓰던 지하수도 이미 많은 곳이 그마저도 사용하지 못할 지역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곳이 한라산입니다만..한라산도 조릿대가 모든 지역을 점령하는 등 난리입니다. 이 모두가 그동안 그 누구도 환경문제에 대한 어떤 대비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미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환경총량을 넘고 있는 것입니다. 제주도를 이끄는 리더들이 모두 앞장서서 지혜를 모으고, 제주의 자연과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시작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김완병 박사(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 양은희 인터뷰



1. 언제, 어떤 계기로 제주의 환경/생태문제에 관심을 두게 되었는지요?

새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동기는 1987년 당시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과학교육과에 진학해서, 선배들의 야외 실습을 따라 다니면서 새들을 알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이듬해 2학년 진학할 때, 생물교육 전공을 선택하면서 본격적으로 제주의 새를 공부하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기 되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박행신 교수님의 배려로 새와 관련된 논문과 보고서를 분석하기 시작하였으며, 한국조류학회 활동과 각종 연구자 모임을 통해 조류 연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류 전문가는 자연스럽게 새들이 사는 공간을 자주 가게 됩니다. 새를 포함한 생물종의 터전이 인간의 발길에 점점 불안해지고 있음을 실감합니다. 생태와 환경 문제에 대해서 비전문가인 일반 시민들이 지역의 환경문제와 생활오염 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서로 공유하고 논의하고 실정입니다. 특정 분야의 전문가로서 동참하고 전문적 지식을 공유하는 것은 제 소명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로서의 연구 역량의 부족함을 늘 고민하고 반성합니다.

2. 그동안 어떤 일을 하셨는지요?

제가 1996년부터는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학예연구사로 재직하면서 육상동물의 자료수집, 전시기획, 교육프로그램 진행, 대외 학술교류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자연생태 자원에 대한 전시 스토리텔링, 특별전, 시민교육 등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에 『제주도에 서식하는 흑로 *Egretta sacra*의 번식생태와

관리방안』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그동안 야생조류의 생태에 관한 논문과 보고서를 발표를 비롯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여러 학술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한라산 총서-동물편(2006, 공저), 세계자연유산 해설 표준교재((2009, 공저), 제주조류도감(2009, 공저), 새들의 천국 제주도(2018), 제주 바다를 누비는 매(2020, 공저) 등을 집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제주환경운동연합, 곳자왈사람들, 제주참여환경연대, 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 제주생명의숲, 곳자왈공유화재단, 제주특별자치도생태연구회, 제주학회 등에서 생태이슈에 대해 공유하고 있으며, 지역 언론사의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3. 활동하기 시작한 이전과 지금까지의 과정을 뒤돌아 볼 때 제주의 상황이 나아졌다거나 크게 변화한 것이 있는지요?

수많은 새들을 만나면서 새들의 습성을 알아가는 학문적 성과보다는 새들에게 닥친 위험이 곧 제주 사람들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낄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제주섬이 문명을 대변하는 사람들의 천국으로 변해가는 동안, 곳곳의 생태환경은 새들이 의도하지 않는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새들 뿐만 아니라 조간대의 말뚝게, 곳자왈의 달갈버섯, 계곡림의 긴꼬리딱새미, 뱅딤의 뿔소똥구리, 오름의 피뿌리풀, 습지의 참개구리, 윗세오름의 노루, 백록담의 암매 등 제주를 대표하는 동식물 자원들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무엇보다도 큰 변화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제주의 원형이나 정체성을 따지지 못하고, 지켜야 된다는 목소리보다는 경제적 논리가 우선입니다.

제주는 공생의 섬이 되어야 합니다. 텃새인 섬휘파람새와 여름철새인 두견이는 경쟁적 사이이지만, 서로에게서 치명타를 받지 않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의 평화협정이 사람들의 이기심에 의해 균형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제주의 생태적 가치를 지속가능토록 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과 철학이 필요할 때입니다. 사람이 자연에 의지하듯 자연도 사람에 의지해서 상호간에 공생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어느 한 쪽으로 기울어지거나 자연을 알보는 우월적 관계 설정은 지양해야 합니다. 기후위기 문제를 대응하는 전략이 제주의 미래를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4. 지금의 기후위기를 해결하게 위해 가장 절실하게 그리고 시급하게 제주에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제주도는 한반도 최남단에 위치해 있고, 철새들의 월동지, 번식지, 중간 기착지로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제주 지역에서의 조류 조사 결과는 상당한 주목을 받습니다. 따라서 제주도가 기후위기와 서식지 파괴에 의한 영향으로 추정되는 조류들의 서식지 이동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최적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 위기와 함께 제주도 이남의 아열대와 열대 지역의 조류 서식지가 인위적인 개발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아열대성 조류의 출현이 빈번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향후 제주도에 서식하는 동물종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지표종 선정하여, 각 종의 출현 및 산란시기, 도래 및 도거시기, 번식행동, 먹이 자원과 번식 성공률, 분포와 개체수 증감, 이동경로 등에 대한 구체적인 변화상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탄광의 산소 보유량을 감지하는 지표종으로 탄광 속에 갇힌 카나리아를 연상할 정도로, 조류는 환경 변화와 계절적 변동을 예측할 수 있는 생물 지표종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숲과 습지와 같은 서식지 질적 변화 정도, 오염원의 종류와 강도를 알아내는데 중요 지표로 활용해 왔습니다. 기후위기와 관련하여 유럽에서 번식하는 새들이 점차 북동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 특히 아열대성 조류는 기후변화의 지표종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조류의 출현과 개체수 증감은 제주도 생태환경의 변화 정도를 감지하고 기후변화가 조류의 분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되기 때문에, 향후 기후변화로 직면하게 될 제주도에 미칠 여러 영향들을 최소화하는데 적합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 또는 기후위기는 미래세대에 끼칠 사회적 문제라기보다는 기성세대의 과도한 문명이기에 유발된 것이다. 제주사람들의 정체성 주에 하나인 ㅈ·낭정신과 같은 자원절약 캠페인이 범시민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숲 보전, 1도 낮추기, 지역 간 사례 등 생활과 행정에서 다양한 기후위기 극복 과제들을 발굴하고 공유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5. 현재의 상황을 바꾸지 못하고 지금처럼 살아가게 되면 제주도의 생태와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의 생태환경은 해안가에서부터 꽃자왈과 오름, 계곡, 한라산숲과 아고산대로 이어지는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의 생태계가 무너지면 연쇄적으로 제주의 생태계는 치명타를 입을 수 있습니다. 새들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현상을 보고도, 아무런 논의와 대비를 못한다면 정말 심각합니다.

이제 기후위기는 생태이슈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상, 농업, 관광, 생활환경 등 인간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특히 제주는 해양, 농업, 관광, 물 및 숲 관리 분야 등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미래 세대에게 끼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지방정부, 중앙정부, 세계기구를 통하여 지역 간, 국가 간 연대 의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전략 공론화와 실천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후위기가 기후변화는 행정기관이나 전문가들의 영역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지배적이며, 일반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속 과제들이 부재합니다. 가정, 학교, 공공기관, 생업 현장 등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자원 절약 및 재활용, 원인자 부담 및 인센티브 활성화, 각종 과제 발굴 및 시민교육, 생태행정 지향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후위기 대응 과제를 지혜롭게 협업해가면, 기후위기가 제주 미래를 보다 희망적으로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김키미(개구름비 마르쉐 대표) / 이주희 인터뷰

개구름비 마르쉐는 2010년대 제주에 널리 확산되었던 벼룩시장 중 하나이다. 강정해군기지로 잘 알려진 강정의 하천과 바다는 만나는 곳에서 2015년 시작되어 2017년까지 주민과 예술가들이 어울린 소통의 장이자 일회용품과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시장이었다.



1. 언제, 어떤 계기로 제주의 환경/생태문제에 관심을 두게 되었는지요?

계기를 말하라고 한다면 사랑하기 때문이었다고 해야겠어요. 환경과 생태문제는 결국 파괴이고 폭력이기에 부당함을 느꼈고 저항하는 것이 인간답게 사는 것이라 느꼈어요.

2. 그동안 어떤 일을 하셨는지요?

개구름비 마르쉐를 강정에 열게 된 것은 군사기지 영토 안으로 속해 사라져버린 개구름비당의 부활이었고, 구름비를 건너다볼 수 있는 마지막 남은 바닷가이기도 했어요. 강정마을의 포제단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한라산 영실에서 발원한 물이 강정천을 흘러 바다와 만나는 내깍이라는 지형의 상징성을 지닌 이곳에 전쟁과 재난 속에서도 삶의 터전보다 먼저 복귀되고 살아가는 시장이야말로 여기 사람이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장이 열릴 때마다 예술가들이 아름다운 공연을 해주었고 (이것은 월정리블루스라는 축제를 강정에서 의미를 더해 이어나간 것입니다.) 팔리든 팔리지않든 함께 지켜나간다는 마음으로 자연농부님들과 플라스틱을 쓰지않는 불편함을 기쁘게 여겨주는 핸드메이드제작가들이 참여해주었어요.

강정지킴이들이 이 날만큼은 쉬기를 바랬고 모두에게 이 시장이 축제로 기억되길 바랬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우리가 지키려하는 평화의 모습이라 느꼈어요

그리고 30년간 맥이 끊어진 강정의 논농사를 친구들과 부활시켰습니다. 찬반을 떠나 삼십년만의 모내기와 농약소리는 마을 어르신들께 이 마을의 역사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요. 제주도 농협의 7대작물에 국한된 수매는 식량자립도 전국 꼴찌라는 오명을 제주에 안겨주었고, 쌀이 나는 몇 안되는 마을이라 일강정이라는 이름마저 잃게 했거든요. 삼십년만에 새끼줄을 꼬아주신 강씨어르신 덕분에 개구름비마르쉐는 누구라도 고개를 숙이고 들어오는 금줄을 입구에 걸 수 있었어요.

최근까지는 비자림로난개발반대운동에 힘을 보태왔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숲이에요 라는 활동으로 시작해 생태조사를 하며 멸종위기종을 발견하는 시민모니터링단으로 멸종저항을 했습니다. 그도 안되어 광주영산강유역환경청 앞에서 한 달간 노숙농성을하였습니다.

3. 활동하기 시작한 이전과 지금까지의 과정을 뒤돌아 볼 때 제주의 상황이 나아졌다거나 크게 변화한 것이 있는지요?

크게 변화한 점이라고 물으시니 주춤하는 마음도 들지만 저항하지않는다거나 저항하는 동안의 성과들은 반복 될지언정 뒤로 물러서지않을 성과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모든 권리들은 누군가 느리더라도 별새의 물한방울처럼 모아온 결과이기때문이라는 증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니까요.

4. 지금의 기후위기를 해결하게 위해 가장 절실하게 그리고 시급하게 제주에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제주에 필요한 것이라면 도정의 변화입니다. 개발주의 정책과 시대착오적인 행정들은 제주를 파괴하는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닌 주요원인입니다. 예를 들면 이번 도정에서 특히나 멸종시기에 생태보고인 한라산 중산간 이상에 대규모 아파트단지라던가 식수곤란을 겪고 있어 단수가 잦은 제주에 외국자본에게 시민들의 식수원이상의 땅을 팔아먹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5. 현재의 상황을 바꾸지 못하고 지금처럼 살아가게 되면 제주도의 생태와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의 생태와 미래는 결국 전지구적 문제의 일환이겠지만 특히나 관광산업에 주력하는 제주의 오페수와 쓰레기, 땅값상승은 결국 하와이의 뒤를 밟는 결과를 예상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환경운동을 하며 이것이 결국 시민운동이고 평화운동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함부로 숲을 베어내는 것을 막아서는 시민은 베어지는 나무와 같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멸종 위기종을 찾아봐야 참으로 알팍한 행정을 확인할 수 있었구요. 결국 시민의 생명권과 생존권 역시 폭력에 놓여있구나 싶었어요. 환경을 지키는 일이 내 자신을 지키는 일과 다르지 않기에 제주의 생태와 미래에 대한 미래는 나의 미래였어요.

신현정 녹색당 청년대표 / 양은희 인터뷰



다음은 신현정 대표와의 영상 인터뷰를 요약한 것이다.

1. 언제, 어떤 계기로 제주의 환경/생태 문제에 관심을 두게 되었는지요?

어릴 적에 한 시민단체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오름학교>에서 주말마다 생태환경을 관찰하곤 했어요. 청소년기에는 특별히 그런 감수성이 있지는 않았어요. 스무살이 되서 탈제주에 실패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지라는 걱정을 하게 됐어요. 일자리 걱정으로 이어지고, 결국 관광서비스 일자리 밖에 없었어요. 이 땅에서는 이런 일자리 밖에 없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어릴 적에 강정에 갔던 기억이 나면서 다시 가 봤더니 철조망으로 막혀있는 모습을 보고 주위를 보게됐죠. 드림타워가 들어서고, 자동차가 많아지고 하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나의 미래가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2. 그동안 어떤 일을 하셨는지요?

녹색당에는 2017년에 처음 입당했어요. 종산간에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계획을 저지하고 있었죠. 같이 활동하고 싶어서 입당했구요. 개발이 일어날 때 말할 수 없는 사람들, 동물들, 자연을 대변해주는 존재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여성, 성소수자, 가난한 이들, 자연, 대지를 대변하고 싶었어요. 입당한 후 청년정치, 비자림로 반대 운동 등을 해왔죠.

3. 활동하기 시작한 이전과 지금까지의 과정을 뒤돌아 볼 때 제주의 상황이 나아졌다거나 크게 변화한 것이 있는지요?

지금까지 제일 큰 문제가 제주 제 2 공항이에요. 이런 문제는 미래세대에 큰 영향을 주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도로, 폐기물 등의 문제가 아니라 관광산업, 쇼핑시설, 카지노 등 자본이 계속 유입되니까 청년들에게 가능한 일자리는 또 관광서비스만 생기는 거죠. 서비스업에서 여성이 대다수면서 최약체가 될 것예요.

4. 지금의 기후 위기를 해결하게 위해 가장 절실하게 그리고 시급하게 제주에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기후 위기가 전세계적으로 인권침해를 발생시키고 있어요. 이주노동자들이 더워서 죽고, 추워서 죽기도 하죠. 올해 '한살림'에서 물건을 사는데 참깨와 참기름이 수급이 안된대요. 올해 폭우로 인해 참깨농사가 안됐다는 거예요. 먹거리가 공급이 안되는 상황이 온 거죠.

제주의 해수면이 세계 평균보다 3 배이상 빨리 상승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가장 큰 문제가 지하수에 염수가 침투하는 것이예요. 압력 문제로 한번 지하수가 염수에 침투되면 다시는 지하수로 돌아갈 수 없어요. 제주 전역의 지하수가 바다 물로 채워지겠죠. 그럼 삼다수를 공급할 수 없다는 문제뿐만 아니라 제주는 지하수로 농사를 짓는 곳이에요. 해수면 상승으로 제주에서 먹거리를 수급할 수 없는 시간이 올 지도 모릅니다. 긴 여름 폭우로 채소 가격이 상승하는 문제 등을 겪게 되겠죠. 기후 위기 시대에 식량 주권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거예요. 문재인 정부의 '그린뉴딜'이 나와서 제주에도 정책이 나오고 있는데요. 기후위기라고 할 때 자원 고갈을 두려워하는데, 사실 배추가 부족할 것이 더 걱정스럽게 될 거라는 거죠. 아마도 멸종위기에 처할지도 모르죠. 자동차를 전기로 바꾸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죠. 더 많은 도로를 만들게 되고, 부동산이 확산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정책은 전 분야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5. 이런 시대에 녹색당은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비자림로 포장 공사를 저지하려고 현장에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생태조사를 하고, 생태 문헌을 토대로 멸종위기종을 발견하고 그랬어요. 우리 정당이 소수 정당이고 원내에 들어가본 적이 없지만 감시하는 시민의 눈으로 제주의 생태를 지키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와 불평등이 하나의 문제라는 것을 알리고 탄소배출 줄이기에 힘쓰고 있어요.

양수남 대안사회국장(제주환경운동연합) / 양은희 인터뷰



1. 언제, 어떤 계기로 제주의 환경/생태문제에 관심을 두게 되었는지요?

저는 청소년 시절부터 환경문제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경로는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였지 않나 싶습니다.

1990년대 초반 고도 경제성장의 그늘인 환경오염 문제가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릴때부터 사회적 감수성이 예민한 편이라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의식을 가졌습니다.

신문에 나온 환경 기사를 스크랩하기도 하고 환경 관련 다큐멘터리를 열심히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대학도 환경관련 학과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학과 스터디에서 당시 환경단체 창립을 준비하던 '푸른이어도의 사람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계기로 푸른이어도의 사람들의 선배님들과 함께 조사도 다니고 하면서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대학 다니면서도 환경교육 프로그램이나 조사 프로그램에서 자원활동을 하였습니다. 대학 졸업과 함께 자연스럽게 제주환경운동연합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2. 그동안 어떤 일을 하셨는지요?

1998년 초부터 단체 실무자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맡았던 주업무는 주로 어린이환경교육 프로그램과 습지 조사 등 조사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송악산 개발, 묘산봉관광지구 개발 등 환경현안에도 같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주도의 개발사업들이 대부분 곳자왈 등 생태계가 우수한 곳을 중심으로 하다보니 조사활동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곳자왈 조사 보고서 등 여러 책자들을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환경교육 프로그램 전담을 맡아 2007년에 제주환경운동연합 부설로 제주환경교육센터를 만들어 당시에 사무국장을 맡았습니다.

몇 년 후, 단체 실무자 활동을 접고 6년 정도 사회복지기관에서 친환경농업 담당을 하다가 2015년도에 다시 제주환경운동연합으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에서는 대안사회국장을 맡아 생태계 보전운동, 조직 사업, 출판사업 등을 맡았습니다. 환경현안으로는 제주제2공항 반대운동 네트워크의 실무자를 몇년간 맡았습니다.

복귀한 후, 특히 생태계 보전운동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용천수 보전운동, 벵디 보전운동, 마을공동목장 보전운동, 해안사구 보전운동 등 생태계 조사와 제도 개선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3. 활동하기 시작한 이전과 지금까지의 과정을 뒤돌아 볼 때 제주의 상황이 나아졌다거나 크게 변화한 것이 있는지요?

고등학생때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후 30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사람에게는 긴 시간일 수 있지만 역사에서는 매우 짧은 시간입니다. 그러다보니 실망할 수 밖에 없죠.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변한게 이 정도밖에 안된다 말인가하고..저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느린것인가? 제주의 환경과 생태계는 망가지는데 개발의 속도는 너무 빠르다는 것. 절망할 때도 있었지만 긴 안목에서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역사는 그렇게 쉽게 전진하는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선 30년 전에 비해서 환경은 악세사리가 아니라 핵심적인 가치가 되었습니다. 물론, 정부나 자치단체는 아직도 개발 우선주의가 기조이지만 환경은 무시할 수 없는 가치가 된 것입니다. 개발사업들을 못 막았지만 개발의 속도는 조금이나마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개발될 면적들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발될 곳들에 대해서 행정당국은 예전처럼 막무가내로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주의 소중한 자원이 너무 많이 사라졌습니다.

4. 지금의 기후위기를 해결하게 위해 가장 절실하게 그리고 시급하게 제주에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기후위기라는 것이 지구적인 문제이고 서서히 진행되는 것이라 시민들이 잘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또 문제 해결도 까마득하게 느껴집니다. 노력의 변화가 바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가지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첫번째는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범지구적인 문명방식의 전환과 생활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대중교통, 자전거 등 녹색교통으로의 전환, 과도한 육식생활의 개선 등 기후위기를 조금이나마 해결하는데 일조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기후위기와 결합되서 우리의 생활속으로 들어와서 더 위험해지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은 첫 번째와는 달리 시민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고 호응도도 더 끌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른테면 도시숲 확대 운동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제주도 도심도 열섬 효과로 인해 더더욱 뜨거워지고있습니다. 시민들의 삶이 힘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주시내의 경우에 도시숲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심내에 개인 사유지들이 많은데 이곳에 건물을 짓도록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매입을 해서 자투리 도심숲 공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어린이 놀이공원도 제주시내에 많이 있는데 나무를 더 풍성하게 심어 도시숲의 기능을 하게 해야 합니다. 또한 도심내의 건물의 옥상에 녹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도심내의 숲 확대를 통해서 도시의 온도를 내리는 것을 행정당국이 앞장서고 시민들과 함께 하는 프로젝트는 지구온난화의 효과를 조금이라도 개선할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실천을 끌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5. 현재의 상황을 바꾸지 못하고 지금처럼 살아가게 되면 제주도의 생태와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암울한 미래입니다. SF 소설의 디스토피아가 제주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하수는 오염되고 쓰레기는 과포화되고 제주도의 바다는 오염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제주도의 미래는 디스토피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최근 10년간 도민들이 실제 겪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섬이라는 제주의 특수성 상, 제주의 미래는 정말 암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환해야 합니다.



1. 언제, 어떤 계기로 제주의 환경/생태 문제에 관심을 두게 되었는지요?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에 있는 동원탄광에서 진행했던 <Yellow Boy Project>를 통해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탄광은 폐쇄되었지만 중금속으로 오염된 물이 갭도에서 흘러나와 내천으로 방류되고 있었는데, 중금속 성분이 워낙 강해 물이 노랗게 보일 정도였지요. 그 곳에서 자연의 속도와 인간의 속도가 불일치하는 지점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들을 목격했던 이래로 작업의 방향이 조금씩 바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후에 제주현대미술관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입주하게 되었고, 제 고향인 제주에서 여러 단편적인 사건과 이슈들을 지켜볼 기회가 생겼습니다. 자연스럽지만 전혀 자연스럽지 않게 변하는 제주의 풍경 안에서 사람들이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는 것을 지켜보며 좀 더 본격적으로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 그동안 어떤 일을 하셨는지요?

생태와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프로젝트는 <나를 꼭 안아주세요 Hold Me Tight>가 있습니다. 제주에서 2013년부터 진행해오고 있는데요. 사유화되고 권력이 되어버린 풍경에 대한 이야기를 사진으로 담아내는 프로젝트입니다.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비현실적인 상황을 경험했고, 비극적인 장소도 마주쳤으며,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심어 놓은 환상을 쫓는 사람들 또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방향을 상실한 도시계획은 돈 있는 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바뀌었고, 결국 그들에 의해 제주 고유의 풍경은 정체성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막대한 자본이 유입되면서 제주의 자연은 소유와 정복의 대상으로 변했으며, 인간관계의 사회적 지형 또한 완전히 바뀌고 말았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불나방처럼 몰려드는 자본의 힘은 그렇게 놀랍도록 치밀하고 유기적으로

작동했고, 도시와 마을은 서서히 황폐해져 갔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멀어졌고 자연스럽게 누렸던 익숙한 풍경은 이제 돈을 지불해야만 감상할 수 있는 소유물로 바뀌었지요. 결국 그들에 의해 동시대의 풍경은 변해왔고 지금도 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변해갈 것입니다. 불안하고 위태로운 풍경 앞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인간의 속도와 자연의 속도의 차이에서 생겨나는 간격들을 찾아다니며 기록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첨부한 사진은 양식장 주변에 몰려든 송어떼를 찍은 사진입니다. 제주 해안가에서 양식을 하는 사람들은 가두어 키우는 물고기들의 상품성을 끌어 올리기 위해 상당한 양의 항생제가 들어있는 사료를 먹이는데, 그 사료를 먹은 물고기들의 배설물들이 바다로 그대로 흘러옵니다. 그 배설물들을 받아 먹기 위해 양식장 폐수 방류 시간에 맞추어 몰려든 바다의 송어떼를 담았습니다.

그 외에 한림읍 월림리의 쓰레기산을 담은 <월림月林> 프로젝트, 관광객들을 태워주다가 허리를 다쳐 더이상 뿔 수 없게 된 조랑말을 위한 집을 만들어주었던 <We Are Flying with the Wind: 중기의 집> 등이 있습니다.

3. 활동하기 시작한 이전과 지금까지의 과정을 뒤돌아 볼 때 제주의 상황이 나아졌다거나 크게 변화한 것이 있는지요?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인간의 속도가 조금은 줄어들었을 뿐, 나아지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의 환경 변화는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환경 변화를 체감하려면 당장 우리 스스로부터 변해야 하는데 주변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4. 지금의 기후 위기를 해결하게 위해 가장 절실하게 그리고 시급하게 제주에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무엇보다 농업인과 어업인들이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사꾼들이 무지막지하게 쏟아 부는 농약과 화학 비료는 그대로 제주의 땅을 파고 들어가 지하 암반수와 섞이게 됩니다. 암반수는 다시 바다로 흘러 들어가고 수증기가 되어 내륙으로 들어오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앞서 설명했던 양식장 물고기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악순환을 멈출 수 있을만 한 강력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음식을 먹는 사람들의 태도도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 현재의 상황을 바꾸지 못하고 지금처럼 살아가게 되면 제주도의 생태와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에서 살아가는 이들과 방문하는 이들 모두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전문가들은 이미 그 심각성을 경고해 왔고, 이제 그 심각성은 우리가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와 있습니다. 제주의 해변은 갯생이 모자반으로 가득하지만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려는 사람들의 마음과 눈에 지저분하고 불편한 풍경은 저 멀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다슬 <Hold Me Tight no.163> 120X150cm, Digital Pigment Print, 2016



이다슬 작가의 <월림月林> 프로젝트 중 일부.

20년간 온갖 쓰레들이 쌓여 만들어진 쓰레기산은 멀리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

보름달이 뜨는 밤이 되야 그나마 희미하게 보이는 산은
언뜻 보면 작은 오름으로 보일 정도로 감춰져 있다고 한다.

임형묵 감독 / 박민희 인터뷰



임형묵 감독은 제주에 살면서 제주 바닷가의 '조수웅덩이'에 형성된 작은 생태계를 추적하는 다큐멘터리 <조수웅덩이: 바다의 시작> (2017-19)을 제작해 해외에서 호평을 받았다. 다음은 임형묵 감독과의 영상인터뷰를 요약한 것이다.

1. 언제, 어떤 계기로 제주의 환경/생태 문제에 관심을 두게 되었는지요?

-저는 제주에 오기 전부터 물과 관련된 문제에 관심이 많았어요. 아주 어려서부터요. 걸음마 할 때부터 아버지랑 낚시를 다니면서부터죠. 관심을 갖다 보니까 어떤 생물이 사는지 호기심이 생겼고 그러다가 제주도로 왔어요. 전에는 주로 담수 생물을 촬영했는데 여기는 바다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촬영하게 됐어요. 그런데 깊은 바다는 오래 관찰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물이 가까운 조간대 생물을 관찰하게 됐어요. 관찰하다보면 생존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보이고 그래서 남들보다 경각심이 생기죠. 그래서 제주의 해양생태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2. 그동안 어떤 일을 하셨는지요?

대학에서 연극영화를 전공한 후 광고계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다가 방송 쪽에 들어갔다가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했어요. 그러다가 Q 채널이라는 방송을 하다가 회사가 망하고, 이후 기업 홍보도 하다가, 제주도 오기 직전에 EBS의 <하나뿐인 지구>라는 프로그램을 하게 됐어요. 이 프로그램은 돈은 안됐지만 생태환경과 관련된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지금까지도 인연을 맺고 같이 일하기도 하죠. 그 중에 제주대학교 최병식교수님이 계세요. 그분 때문에 조간대 생물을 알게 되었고 제주에 와서 그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게 된거죠.

3. 활동하기 시작한 이전과 지금까지의 과정을 뒤돌아 볼 때 제주의 상황이 나아졌다거나 크게 변화한 것이 있는지요?

제가 제주에 온 직후에 변화가 시작됐죠. 그때만 해도 놀러 온 사람도 많지 않았죠. JDC가 개발에 한참일 때였고 중국자본을 끌어오려 할 때 하죠. 올레가 붐을 일으키고 있어서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하기도 했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그렇게 의식이 있지는 않았어요. 중국에 홍보할 영상을 제작하기도 했죠. 투자 붐이 일기 시작했고, 너무 많이 변하더군요. 그러다가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지금의 신화역사공원 부지, 영어교육도시 부지 등이 파헤치고 있을 때였어요. 드론이 없던 때라 사다리 차를 타고 그 부지를 촬영하게 됐죠. 황당했어요. 자연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파는 것이 아니라 파헤쳐서 도로, 주차장, 구획을 만들어서 팔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콘텐츠가 없는 싸구려 자본을 유치할 수 밖에 없더라고요. 부당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죠. 회사를 그만두고 '강이와 바당'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다큐멘터리를 만들기 시작했죠.

바다는 변화무쌍하고 변화가 많아서 촬영하기 힘들죠. 무엇이 사라지고 무엇이 나타났다는 것을 알기 힘들죠. 다만 10년동안 쓰레기가 많아지고 연산호가 많아진 것은 말할 수 있어요. 환경단체들이 연산호가 사라졌다고 하는데 사실 많아졌죠.

4. 지금의 기후 위기를 해결하게 위해 가장 절실하게 그리고 시급하게 제주에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기후변화를 걱정할 때 감수성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후변화 원인에 대한 여러 주장이 있는데, 원인을 딱 집어서 말하기가 어렵다고 봐요. 산업혁명, 기후변화는 원래 자연적인 현상이라는 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전거 타기,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감수한 삶처럼 자연친화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가져오는 변화는 미미할 거예요.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해 100이라는 노력이 필요한 데 누군가의 희생과 고통으로 가져올 변화는 한 자리 수도 되지 않을 거예요. 결국 기후변화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생태가 살아나야 돼요. 바닷속, 아마존 밀림, 맹그로브 등이 살아나야죠. 세계정상들이 모여서 해결해야죠. 제주가 탄소제로를 말하는데, 우리는 탄소가 필요해요. 탄소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현상이 자연 속에서 자연스럽게 해결되도록 해주어야죠.

5. 현재의 상황을 바꾸지 못하고 지금처럼 살아가게 되면 제주도의 생태와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산업폐기물이 너무 많아요. 분리 수거도 안돼요. 매립하고 있죠. 심각한 문제죠. 제2공항을 만들면 엄청나겠죠. 그렇다고 자연인으로 살 수도 없어요. 너도나도 자연인이면 숲이 남아나지 않을 거예요. 시골에서는 기타 쓰레기 분리도 안돼요. 쓰레기 봉투도 사용하지 않아요. 여러 면에서 시골에 사는 것이 좋은 것인가라는 회의가 들어요. 도시에 모여서 잘 만들어서 살고 쓰레기 등을 잘 조절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죠. 바다쓰레기는 심각하죠. 남해안의 양식장에 스티로폼이 많아요. 그것들만 없애도 제주도 해양쓰레기가 줄 거예요. 나라에서 돈을 쓰더라도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죠.

정은혜 작가 / 박민희 인터뷰



<플라스틱 만다라>, <산호뜨개> 등 제주 생태를 관찰하고 표현하고 실천하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추진하는 '에코 오롯'(www.ecoorot.org)의 중심에는 정은혜 작가가 있다. 정은혜는 2010년 서귀포시 가시리 창작지원센터 입주 작가의 경험을 계기로 제주로 이주하게 되었고 제주시 조천읍 선흘에 정착했다. 비슷한 시기 같은 선흘 마을에서 만난 문화기획자와 디자이너, 저술가, 출판기획자 등이 모여 '선흘예술작목반'을 만들어 활동하기도 했다. 다음은 정은혜 작가와의 영상인터뷰를 요약한 것이다.

1. 언제, 어떤 계기로 제주의 환경/생태 문제에 관심을 두게 되었는지요?

하나의 계기는 아니고 여러 계기죠. 청소년기에 캐나다에서 자랐어요. 자연을 좋아하게 되고 그러다가 제주에 왔어요. 그림을 좋아하고 자연을 좋아하고, 바다에 갔다가 미세 플라스틱을 발견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됐어요.

2. 그동안 어떤 일을 하셨는지요?

상담사, 화가, 작가, 생태문화예술교육 등 여러가지를 해요. 예술적인 것이 치유적인 것이라고 봐요. 글쓰고 사람들과 함께 자연 속으로 들어가고 초대하는 일을 하죠.

3. 활동하기 시작한 이전과 지금까지의 과정을 뒤돌아 볼 때 제주의 상황이 나아졌다거나 크게 변화한 것이 있는지요?

미세플라스틱을 줍기 시작하면서 더 많은 것을 보게 됐어요. 제 눈이 뜨여서 더 보게 된 것이지 상황이 나빠져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작업을 하게 되면 예민하게 되고 관점이 달라져서 심각하다고 느끼게 돼요. 엄청난 쓰레기를 발견하게 되고, 태풍이 오면 더 많은 쓰레기를 발견해요. 이런 작업을 할 때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한번 보기 시작하면 안 볼 수가 없다고 해요.

4. 지금의 기후 위기를 해결하게 위해 가장 절실하게 그리고 시급하게 제주에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다양한 방식이 있어야겠죠. 정책, 정치, 개인의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겠죠. 제 작업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마음이 바뀌어야 해요. 왜 이렇게 많은 쓰레기를 토해내는 사람이 되었는지, 이렇게 많은 플라스틱을 바다에 뿌리면서 왜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지 그 마음을 들여다 보려고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 그것이 제 작업의 초점이에요.

기후변화를 생각하면 심장이 아프고, 해결할 수 없는 정도가 크게 다가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하는 것인지 모르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실감할 수 없는 너무 큰 문제죠. 그런 데 대응할 수 있는 예술을 하고 싶어요.

5. 현재의 상황을 바꾸지 못하고 지금처럼 살아가게 되면 제주도의 생태와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동안은 가시적 변화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적응력이 나오겠죠. 그러다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올 거라고 봐요.

치료사로서 저는 우리가 죄책감을 가져야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행동할 수 있다고 봐요.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데 먼저 반성했으면 좋겠어요. 나와 자연이 연결되어 있고 이 문제는 나의 문제라는 것을 느껴야 한다고 봐요. 바다 생명이 플라스틱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데, 마치 먼 남의 이야기처럼 보는 데, 몸으로 느끼는 경험이 필요하죠.

조약골 (핫핑크돌핀스) / 이주희 인터뷰

1. 언제, 어떤 계기로 제주의 환경/생태문제에 관심을 두게 되었는지요?

핫핑크돌핀스는 환경운동가 황현진과 제가 함께 만들었습니다. 황현진 대표는 제주 바다의 국제보호종 해양포유류 남방큰돌고래들을 제주도내 돌고래 수족관 업체에서 불법으로 포획하여 수조에 가두고 돌고래 쇼를 시켜왔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바로 제주 중문관광단지에 있는 해당 업체에 내려가 돌고래 감금 실태를 확인했으며, 이 돌고래들을 고향인 제주 바다로 야생방류하라는 '수족관 돌고래 해방운동'을 국내에서 최초로 2011년 7월 시작했습니다. 황현진 대표는 핫핑크돌핀스를 만들고 수족관에 갇힌 돌고래들을 원래 살던 바다로 보내는 운동을 지속해왔으며, 바다로 돌아온 돌고래들이 제주 연안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제주 해양생태계 보전운동도 동시에 했습니다.

제주 바다의 돌고래 서식처가 파괴되고, 연안이 오염되면 수족관 돌고래들을 바다로 돌려보내도 돌고래들이 건강하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리고 당연하게 제주의 환경/생태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평화운동가로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운동에 참여하다가 해군기지 공사가 시작되기 전인 2011년 7월 강정마을 구름비 앞바다에서 야생 남방큰돌고래 무리들을 우연히 보고 제주 바다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었습니다. 해군기지 공사로 돌고래 서식처가 파괴되고 제주 연안이 망가지면 안되겠다는 마음으로 제주 해양생태계를 지키려는 결심을 하면서 돌고래 보호활동을 벌여온 황현진 대표와 함께 핫핑크돌핀스를 공동으로 설립하였습니다.

2. 그동안 어떤 일을 하셨는지요?

제주 퍼시픽랜드와 서울대공원 등의 돌고래 쇼장과 수족관에 갇혀 사육중이던 일곱 마리의 제주 남방큰돌고래들을 고향 바다로 돌려보내는 일을 했습니다. 이 돌고래들은 모두 바다에서 불법으로 포획된 개체들로서, 제주 남방큰돌고래의 개체수가 급감하던 시절에 돌고래 보호의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바다로 돌아온 돌고래들도 야생 무리와 완벽하게 적응하면서 새끼 돌고래들을 낳기도 했습니다. 이 돌고래들은 한반도 해역에서는 제주 해안에서만 발견되며, 전체 개체수는 130마리 정도로 매우 적습니다. 정부는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했지만, 실질적인 보호대책이 매우 부족합니다. 핫핑크돌핀스는 해양생태계 보전운동을 하면서 특히 고래와 돌고래 보호가 해양생태계 보전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왔고, 이를 위해 제도적으로 보호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돌고래 보호구역 지정 확대와 해양포유류보호법 제정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다이지마을에서 잔인하게 포획된 돌고래들을 국내 돌고래 쇼장으로 수입해서 가둬놓고 돌고래 등에 올라타기 등의 학대를 저지르는 쇼장도 있어서, 이들 쇼장에 대한 돌고래 사육 실태 조사, 돌고래 쇼장 폐쇄 촉구 시민 캠페인, 돌고래 학대 및 폐사 시설 고발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생생물보호법을 개정하여 일본 등 해외에서 잔인하게 포획된 야생동물의 국내 반입 자체를 금지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핫핑크돌핀스의 지속적인 압박에 힘입어 정부에서도 마침내 얼마전 해양수산부가 수족관 관리계획을 발표하여 신규 돌고래 수족관 설립 금지와 돌고래 체험 프로그램 등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밖에 핫핑크돌핀스는 돌고래 바다쉼터 마련과 야생 돌고래 서식지 보호 운동(제주에서는 특히 연안의 돌고래 서식지 가까이 지어지는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 반대 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제주 바다에서 죽은채 발견되는 토종 돌괘 상괘이의 사체 발견 빈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년 늘어나는 상괘이 폐사를 줄이기 위한 제주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핫핑크돌핀스는 지속적으로 촉구해왔고, 구체적으로 상괘이 보호조치 4가지 대책을 제주도정에 건의하여 제주도정이 이 제안을 일부 받아들여 상괘이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시행하려 준비하고 있습니다.

3. 활동하기 시작한 이전과 지금까지의 과정을 뒤돌아 볼 때 제주의 상황이 나아졌다거나 크게 변화한 것이 있는지요?

핫핑크돌핀스가 설립된 2011년에는 지금보다 제주 남방큰돌고래의 서식처가 훨씬 넓었습니다. 제주 바다 전역에서 돌고래들이 발견되었고, 애월 한림 해역과 구좌 성산 해역에서 돌고래 발견 빈도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이 흐르면서 해안 난개발, 펜션과 카페 등의 무분별한 건립, 해안도로 건설, 갯바위 파괴, 해안 매립,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한경면 일대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 선박 물동량 증가 등의 여러 요인들이 겹치면서 제주 남방큰돌고래의 서식처가 급격하게 감소하였습니다. 7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돌고래들은 연안 정착성이라서 먼 바다로 나가지 못하고, 제주 해안 가까운 곳에 정착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제주 연안이 점점 돌고래들이 살기에 부적절한 곳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남방큰돌고래들은 대정과 구좌 일부 연안에서 주로 발견됩니다.

또한 제주도내 하수처리장에서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하수가 그대로 바다로 배출되는 경우가 늘면서 제주 연안 수질이 악화되었습니다. 제주도는 조류 특성상 연안의 오염물질이 먼 바다로 나가지 않고 연안에 쌓이게 되는데, 관광객의 급격한 증가로 하수처리장의 처리 용량이 넘치면서 똥물이 그대로 바다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육상 양식장의 지속적인 배출수 방류, 축산 폐수의 바다 유입, 농촌에서 사용하는 비료와 농약 등의 제주 해안 유입 등의 원인으로 제주 남방큰돌고래들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는 적신호가 켜져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쓰레기 배출이 폭증했습니다. 이걸 지난 10년 사이 제주도에서 발생한 변화 가운데 정말 끔찍한 변화입니다. 이제 제주 바다 어디를 가도 쓰레기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핫핑크돌핀스가 활동을 시작한 2011년에 비해 2021년 지금 전반적으로 제주의 해양생태계는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4. 지금의 기후위기를 해결하게 위해 가장 절실하게 그리고 시급하게 제주에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기후위기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매년 제주에서는 이전에는 겪어보지 못했던 기후 문제들이 새롭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태풍과 폭우와 장마와 맹생이모자반의 폭발적인 증가와 폭설 등등 제주도민들은 기후위기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제주 농민들도 마찬가지이고요. 해수 온도의 상승과 해수면 상승도 기후위기가 몰고온 큰 문제입니다. 해녀 분들이 물질을 나가도 잡을 물건이 바다에 없습니다. 기후위기를 이렇게 거의 모든 제주도민들이 절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무엇이 제주에 필요할까요? 사실 한꺼번에 해결하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위기가 심화되는 정도를 약간 늦출 수 있는 정도밖에 되지 못할 지도 모릅니다. 기후위기 직격탄을 맞고 있는 제주도는 과거처럼 연간 3천만명 이상의 관광객을 받는 방식으로는 더이상 섬의 생태계가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을 솔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생태환경이 제주의 가장 큰 자원이자 소중한 보물이라는 인식 아래 제주 자연환경의 보전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합니다. 그에 따라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과 트램, 자전거 위주의 교통정책으로 전환하고, 호텔과 카페 또는 쇼핑 중심의 소비 관광이 아니라 제주의 자연을 감상하고 그 속에서 힐링을 얻는 생태관광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2공항이나 제주 신항만 등 대규모 토목건설 사업으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생각은 기후위기를 부채질할 뿐이며, 제주를 재앙으로 몰고갈 것이라고 봅니다.

5. 현재의 상황을 바꾸지 못하고 지금처럼 살아가게 되면 제주도의 생태와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후위기가 심화되고 생태계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제주는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제주는 전국에서 해수온도 상승이 가장 가파르게 이뤄지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너무 빠른 속도로 제주 연안의 해수온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살아가는 해양동물은 기후위기와 생태계의 변화 및 서식 환경의 악화를 먼저 느끼고 우리에게 구조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핫핑크돌핀스가 돌고래를 비롯한 해양생물의 변화에 주목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돌고래들이 내지르는 비명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알아들어야 합니다. 이대로 소비적이고 파괴적인 삶을 지속한다면 머지 않아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제주의 삶의 질이 하락할 것입니다. 이미 미세먼지, 쓰레기 배출, 교통 체증 등으로 제주의 삶의 질은 나빠지고 있습니다. 오름과 곳자왈과 갯바위, 숨골 등 제주만의 독특한 가치를 지닌 천혜의 자연환경이 난개발과 과잉관광 그리고 이윤추구라는

욕심에 의해 파괴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지금과 같은 제주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교통체증과 쓰레기로 뒤범벅이 되었고, 난개발로 신음하는 제주... 만약 10년 전에 우리에게 지금과 같은 제주를 원하냐고 물어봤다면 과연 우리는 원한다고 답했을까요? 전혀 아닐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선택의 기로에 놓인 것입니다. 10년 후 제주의 모습이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더욱 끔찍한 모습으로 변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더 늦기 전에 현재의 파괴적인 방식을 전환해야 합니다.



한핑크돌핀스가 참여한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_ 이제는 돌고래 감금을 끝낼 때. 정부는 돌고래 감금시설 폐쇄하고 야생방류와 바다쉼터 마련을 실현하라



1. 언제, 어떤 계기로 제주의 환경/생태문제에 관심을 두게 되었는지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 강정마을에서 평화운동을 하고 최근에는 전시 기획과 영화 프로듀서로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또 제주대 사회학과 박사과정 중에 있는 최혜영입니다.

2012년 초 '구럼비 바위'로 명명되는 공공의 것들이 국책사업과 안보라는 이름으로 폭파되고 기지가 지어지면서 제주의 환경과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강정마을의 환경과 생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강정천과 바다가 만나는 곳에서 다양한 생물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강정천 상류 냇길이소는 서귀포 시민들의 식수원이기도 합니다. 또 그 옆엔 600년 된 팽나무가 마을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줍니다. 그런 곳에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 그동안 어떤 일을 하셨는지요?

강정마을로 주소를 옮기기 전에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임용을 준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2009년 대학교 4학년 때 제주4.3기행으로 처음 제주4.3을 알게 되면서 제주도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기행 중에 강정마을에 1박 2일 머물게 되었고 그때 처음 강정마을에 해군기지 유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임용 준비하던 때에 다시금 강정 뉴스를 보고 내려가게 되었고 그 길로 주옥 강정마을에 주소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주연산호TFT' 활동을 함께 하기 위해 2014년부터는 스쿠버 다이빙 자격을 땀습니다. 해군기지 준공 이전의 바다 속을 모니터링하고 준공 과정의 연산호 생태를 고발하기도 했고 현재는 해군기지 준공 이후 기지 운용으로 발생하는 연산호를 기록하고 촬영하고 있습니다.

스쿠버 다이빙은 레저 스포츠로 마니아층과 일반인 모두에게 인기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군사 활동이나 구조 활동 등 직업적 산업적 측면에서도 활용되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강정 연산호 모니터링은 단순한 레저 활동이나 직업적이고 기술적인 측면으로서의 다이빙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의 상호 접촉의 장을 만들고 이를 통해 우리를 둘러싼 변화들을 직시하는 수단으로서의 다이빙에 주목합니다.

강정 дай버들의 다이빙은 구름비에서, 비자림에서, 성산 제주 신공항 예정 부지에서 일어났던/나고 있는 일들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이들은 구름비가 발파된 현장에서, 콘크리트 블록과 벽으로 구획 지어진 강정 앞바다에서 연산호들이 입을 다물고 색을 잃고 먼지에 뒤덮여 숨 쉬기를 포기한 현장으로 찾아갑니다. 그들은 말할 수 없는 비-인간 존재들에게 목소리를 빌려주기 위해 그 자신 스스로 비-인간적 존재가 되기를, 편하고 안전한 상태가 아니라 진동하고 충돌하고 변동하는 상태로 이행하기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땅에서 바다로, 대기에서 물로, 중력에서 부력으로 감각을 이전하는 행위는 인간의 몸에서 비-인간의 몸으로, 정형화되고 고착화된 삶의 질서에서 유동적이며 변동하는 장으로 이전하는 순간입니다. 가까이 귀 기울이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작고 연약한 생명체들의 목소리를 귀 담아 듣기 위해 온 몸을 내어주는 이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해군기지 유치가 결정됐던 2007년과 2008년 녹색연합과 강정마을 주민들은 자체적으로 천연보호구역 내 제주해군기지 예정지 조사를 진행했고 조사 결과 이 지역에 산호 군락지가 발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제주남부해안은 제주연안 연산호 군락지로 2004년 문화재청에서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상태였습니다.

2012년 해군기지 해상 공사를 전후로 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해 2015년 당시 해군기지 공사로 인한 연산호 군락의 폐사와 훼손을 고발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해군기지가 준공되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같은 지점에 사라진, 또 분포하고 있는 산호들을 관찰,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주연산호TFT는 시민으로 구성된 강정 연산호 모니터링단으로 해군기지 준공 이후에도 계속해서 해군기지를 감시하고 해군기지 운용으로 인한 변화를 관찰합니다. 이뿐 아니라 제주도정과 문화재청, 환경부를 압박하는 단위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2018년 11월, 2019년 8월) 실시한 강정 연산호 수중 조사에서 제주연산호TFT는 신규 30도 항로를 위해 준설이 필요하다는 저수심 '암초' 지역이 국내외 멸종위기 산호총류의 집단 서식지임을 확인했습니다. 각종 보호구역과 멸종위기 종을 훼손하면서 건설된 제주 해군기지에서 30도 항로를 신규 지정하면 또다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핵심지역, 천연보호구역, 해양보호구역, 도립해양공원 등을 침범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해군이 신규항로를 위해 준설하겠다고 밝힌 지역은 제주 남부해역의 손꼽히는 산호총류

서식지이며, 보호지역입니다. 단순히 '암초'를 걷어내는 것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던 계기는 지속적으로 강정 연산호 수중 모니터링을 통해 보고서를 만들어 왔기 때문이고 시민들의 꾸준한 기지 감시와 수중 모니터링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미 해군기지가 지어졌는데 계속 활동을 하고 조사를 하는 이유가 뭐냐는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해군기지가 생기면서 도로가 확장되고 마을의 모습은 변해가지만 여전히 마을에서 백배와 미사, 인간띠잇기로 일상의 저항들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직접 들어가 보지 않으면 쉬이 보기 어려운 풍경들입니다.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일, 해군기지로 인한 피해를 기록하고 감시하는 일에는 끝이 없습니다.

강정에서 여성 다이버로서 꾸준히 강정 연산호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이빙 장비를 입고 무거운 공기통을 메고 호흡기를 물고 물속에 들어가면 그 때부터는 호흡하는 소리만 들리고 고요합니다. 말하는 것, 걷는 것이 물속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여기던 신체적 경험들은 물속에서 해체되고 오롯이 호흡기와 동료 다이버들과 수중 생물들에게 의지한 채 30분 정도를 유영합니다. 매번 조금의 방심이 큰 실수로 이어지는 해상 활동에서는 긴장하고 동료들을 더 챙기게 됩니다.

제주 해군기지 준공을 포함하여 기후 변화, 오염과 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파괴와 압력이 계속되고 있어 지속적인 시민 모니터링과 기록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꾸준히 연산호 모니터링을 진행해 온 경험과 축적된 자료들이 강정 연산호 모니터링단이 가진 역량과 자원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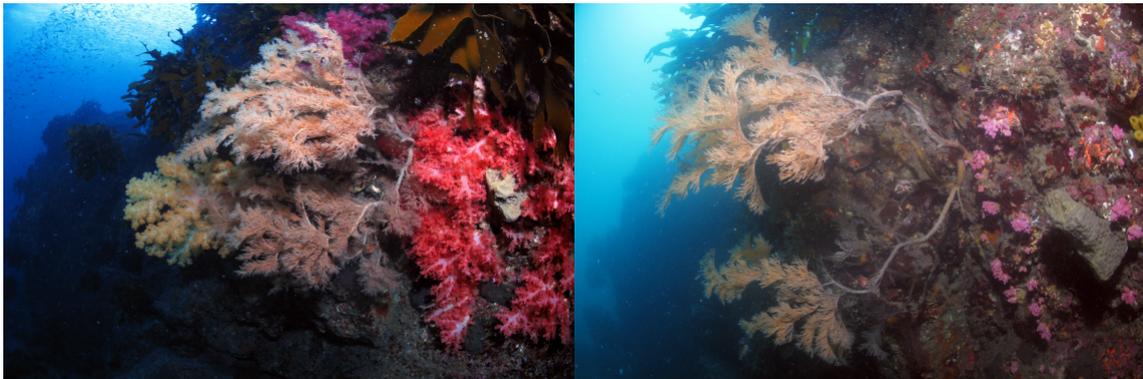
3. 활동하기 시작한 이전과 지금까지의 과정을 뒤돌아 볼 때 제주의 상황이 나아졌다거나 크게 변화한 것이 있는지요?

해군기지 준공 이후 강정 앞바다는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정등대와 서건도 일대는 퇴적물이 현저히 증가하였고, 육안으로도 탁도가 나빠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사 과정의 다양한 문제에서 발생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서남방파제와 동방파제로 인한 조류의 변화는 산호 생태계에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공사 완공 이후에도 입출항 선박에 따른 여러 요인으로 산호 생태계는 변화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대한민국 해군은 처음엔 '산호 이상 무'라고 주장했지만 입수한 보고서에 따르면 '공사로 인해 일부 영향을 받음'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2월 해군 주장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번 제주연산호조사 TFT에서 입수한 보고서(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 천연보호구역 연산호 생태사후조사/해군본부 2015.10) 내용에 대한 언론 보도 이후에서야 해군의 입장자료(2017.2.3.)를 통해 처음으로 "강정등대 인근 수중 연산호가 공사로 인해 일부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인정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므로 "제주 강정 앞바다 연산호 군락지 훼손이 해군 용역을 통해 최초로 확인"했다는 연산호조사TFT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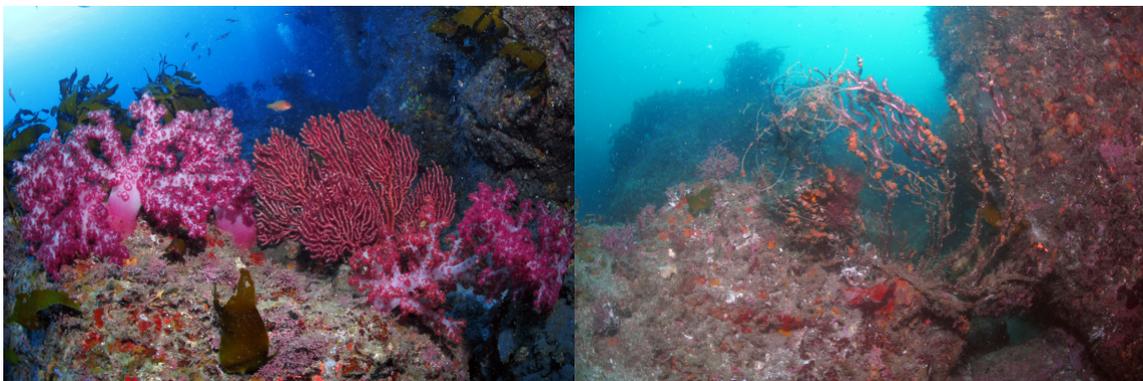
주장(2017.2.2.) 은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정등대는 수심 15미터 지점에 해송, 긴가지해송, 밤수지맨드라미, 자색수지맨드라미 등 멸종위기 야생동물, 천연기념물 9종이 발견 됐는데 현재는 분홍바다맨드라미만 등섬등성 관찰됩니다. 해군기지공사로 인한 대규모 매립, 기지 방파제가 생기면서 조류의 흐름이 변화하고 부유물이 쌓이고 탁도 또한 올라가는 현상들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서건도는 해군기지 준공 이전 분홍바다맨드라미, 해송, 둥근컵산호, 진총산호류 등이 풍부했으나 2012년 3월 해군기지 수중 공사가 시작되면서부터 대부분의 산호들이 사라졌고 현재는 분홍바다맨드라미가 드문드문 분포해 있으며 (그것 마저도 작다) 작년 10월 조사에서는 그 부근에 거품돌산호, 빛단풍돌산호가 증가했음을 확인했다. 최근 가을 조사에서는 서건도 밑 거품돌산호가 죽어가고 있는 모습(백화현상)을 관찰했습니다. 서건도는 15미터 지점 수중동굴이 있는데 그 주변으로 산호들이 관찰되던 것이 현재는 보이지 않고 특히 동방파제부터 서건도 앞 수면 바닥은 조류의 흐름이 흐르지 않는 곳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수온이 상승하면서 아열대 산호들이 복상하고 있습니다.



강정 등대 2008/2013



서건도 2008/2013

4. 지금의 기후위기를 해결하게 위해 가장 절실하게 그리고 시급하게 제주에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올해 '제주 바당 연산호 기록 『코랄 블루』' 사진책을 엮었습니다. 해군기지로 인한 연산호 군락의 훼손은 시민들에게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조사 외에 여전히 제주 바다 속에 아름다운 연산호를 기록하고 그것들을 알리고 자연스럽게 익숙하게 하는 것, 물 속에 쉬이 보기 어려운 것을 물 밖으로 꺼내 이야기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해양쓰레기 문제는 낚시꾼, 어업 활동을 하는 분들, дай버, 관광객 모두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5. 현재의 상황을 바꾸지 못하고 지금처럼 살아가게 되면 제주도의 생태와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이지 않는 사이에 존재도 알지 못하고 사라지게 되는 것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제주 바당 연산호 기록을 담은 사진책 <코랄블루>. 2021년 출간.

현원학 박사(제주생태교육연구소) / 양은희 인터뷰



현원학 박사는 생태 현장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참가자들에게 무릎을 꿇고 그 장소에 ‘미안합니다’를 외치도록 하는데, 이런 방법을 쓰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과 의식에 생태의 중요성을 각인시키기 위해서이다. 지구가 건강해야 인간이 건강해진다는 인식을 널리 알리고 있다.

1. 제주의 환경운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여전히 문제해결이 요원해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제주의 산업은 농업과 관광업이 축을 이룹니다. 농업은 규모에서 크게 변한 것이 없는데, 관광업은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도 성장 동력을 가진 ‘제주의 미래다’라는 신념을 주었습니다. 당시 제주의 텔레비전 뉴스 화면 상단 코너에 감귤 kg 당 가격과 오늘의 입도객 수가 표시되곤 할 정도로 관광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미래 산업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러니 관광과 관련된 투자라면 무조건 허용하게 되었고 48개의 골프장 건설계획이 수립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 정도는 경제적 이유로 실현되지 못했죠. 땅이 넓은 호주나 미국과 같은 곳에서는 골프장이 큰 면적을 차지하지 않을지 몰라도, 제주도는 섬이라는 특성상 한정된 지면으로 인해 저렴하면서도 미개발된 지역을 찾다보니 곳자왈이라고 하는 돌과 나무가 무성한 지역이 선택됩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쓸모없는 땅이자 싼 가격에 넓은 면적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맞아떨어지면서 골프장으로 개발됩니다. 이때부터 곳자왈을 두고 환경단체와 개발주의자들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2007년까지는 곳자왈을 보존하자는 의견이 15% 정도였으나 환경단체들이 지속적으로 교육과 홍보를 진행한 후 2016년에는 보존의견이 85%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곳자왈과 오름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이 사례는 사회적인 이슈화, 법제화 등에 10여년이 걸린다는 통념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빠가 빠지게 노력했기 때문에 제주가 경관1등급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무얼 했느냐는 질문에 맥이 빠집니다. 오름과 곶자왈의 60% 이상이 사유지인 현실에서 그것들의 가치를 지금만큼 지켜내는 데도 너무 힘들어서 이전 지칠 정도입니다.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을 통해서 현재 가격의 3-5배 높게 그 땅을 매입하자는 운동을 벌여왔는데 소유주들은 안 팔려고 합니다. 자가상승을 기대하기 때문이죠.

2. 제주의 환경운동은 1990년대 초반부터 등장합니다. 당시에 어떤 동기가 있었습니까?

1990년대 초반 환경운동의 확산은 전세계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제주도에 개발관련 법이 등장하고 이에 자극을 받은 청년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푸른 이어도의 사람들'이 생기고 환경운동연합으로 명칭을 바꾸며 살아남았죠. 그동안 수많은 환경단체들이 경보음을 울리지 않았더라면 환경은 더 나빠졌을 겁니다. 85%의 도민이 곶자왈을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은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3. 기후위기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곧 식량위기가 올 것이라고 예측하는 데요. 제주도의 농업은 여기에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대비를 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물을 보면, 제주에서의 최악의 시나리오는 가뭄으로 지하수가 고갈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해수담수화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요. 먹거리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의 측면에서는 지방정부, 중앙정부가 모두 힘써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는 실제 행동계획을 수립하기에는 땅이 좁은 곳이어서 행동만 취하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바다부터 한라산까지 나타나는 현상들은 제주를 전 세계에 기후변화 현장의 심각성을 알리는 천연의 곳으로 만들기엔 매우 적합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용머리해안은 해수면 상승이 현저한 곳인데, 그런 장소에서 해수면 상승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의무적으로 갖도록 하거나, 한라산에서 구상나무가 죽어가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 굴 재배 지대가 제주를 넘어 전라남도로 상승중이라는 사실, 자리 돛이나 방어가 사라지고 열대성 어종이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 등을 알리는 것이 적합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 홍보 등에 적합한 곳이지 미래의 먹거리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등 기후변화 이후의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우기에는 부족해 보입니다.

4. 언제부터 환경에 관심을 가지셨고 어떤 활동을 해오셨는지요?

저는 대학시절 산악부에서 처음 오름을 접했고 오름마다 다른 매력에 빠졌습니다. 이후 오름 답사를 하며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 초반 KBS 제주에서 오름에 대한 프로그램을 소개하기도 했고요. 이후 사람들과 오름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 이전에는 오름이 지식차원에 머물렀는데, 공유해야 할 자산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997년경 환경운동연합에 참여하던 시기에 '자연해설모임'을 운영하며 들로 산으로 나가

돌아다녔습니다. 오름, 꽃자왈, 계곡, 바다 등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생태의 중요성과 제주의 가치를 알리기 시작했죠. 그러다 환경운동연합 대표가 된 후 비슷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보다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설득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07년부터는 제도권으로 들어가서 인재개발원, 학교 등에서 환경과 생태교육을 하기 시작했고, 공공기관의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공무원들을 설득하려고 했는데, 청정이나 자연, 공존과 같은 단어들이 공무원의 서류에 나오기 시작하더군요. 이후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들어 제주에 대한 지질학을 배우려고 공부를 시작했다가 박사학위까지 받았습니다. 제주의 인문학 등 여러 학문이 있지만 지구과학을 알지 못하면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서지요.

5. 제주가 세계자연유산, 지질공원으로 지정되었는데, 환경운동에 도움이 됐나요?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제도권에서 인정을 받으니 공무원들을 설득하기에 용이해졌어요.

앞으로 제주도가 가야할 길이라고 교육하기도 좋구요. 발담, 해녀 등을 유형, 무형의 유네스코 유산으로 추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6. 아열대가 언제 어떻게 올까요?

강수량이 많아지면서 예상치 못한 병해충과 함께 올 것 같습니다. 그 병해충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겠지요.

7.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의식의 변화죠. 과거 경험을 보면 홍보와 교육을 통한 변화는 10년 후에 나오더군요. 기후위기를 돌릴 정도의 변화도 몇 년 후에 올 겁니다.

제주33프로젝트 팀



- 기획자 양은희는 뉴욕시립대학교에서 미술사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스페이스 D 디렉터이다. 그동안 전지구화, 젠더, 코스모폴리타니즘 등의 주제로 현대미술을 연구해 왔으며 2009 인천여성미술비엔날레 등 여러 전시를 기획한 바 있다. 저서로 『22개의 키워드로 보는 현대미술』(2017, 공저), 『diaspora 지형학』(2016, 공저), 『뉴욕, 아트 앤 더 시티』(2007, 2010)가 있으며, 역서로는 『개념 미술』(2007), 『아방가르드』(1997), 『기호학과 시각예술』(1995, 공역)이 있다.
- 김해다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조각을, 런던 SOAS University of London에서 동아시아미술사 석사과정을 졸업했다. 동시대 미술에서 한국의 지역성이 발현되는 지점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서구 중심적 근대성에 대항하는 방법론으로서의 동아시아 종교의 가능성을 탐구해오고 있으며, 현재는 서울과 제주를 오가며 전시 기획과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 박민희는 시각예술작품에 반영되어 있는 사회와 역사 읽기에 흥미를 갖고 전시기획과 아카이브 작업을 한다. 제주시 애월읍에 위치한 '마음의시력'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신예선, 스톤김, 최성임 3인 전시 <쓸모를 잇는 시간>(엔트러사이트 제주 한림, 2020) 기획 진행, 2020세계유산축전: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불의 숨길 아트프로젝트 <불의 기억: 자연, 인간, 생명의 길> 코디네이터, 제주문화예술재단 창의예술교육랩 교육매니저 등으로 활동 했다.
- 이주희는 학부에서 문예창작과 미술이론을 전공하고 홍익대 미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현재 제주 아트랩와산의 디렉터이다. 새로운 세대의 미학적 담론을 형성해 나가는 것에 관심을 두고 현장 비평과 기획을 수행하고 있다.
- 정필주는 서울대 사회학과 박사과정(세부전공: 예술사회학)을 수료하고 현재 예술기획단체 예문공 대표이다. <Knocking the Door>(2021), <수면으로부터의 작업실>(2020) 등의 전시를 기획했다. 예술가의 사회적 정체성, 예술가 복지, 여성주의, 공공예술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중이다. 저서로 『큐레이팅을 말하다』(2019, 공저), 『화가의 빛이된 아내』(2006) 등이 있다.

제주33프로젝트
섬과 사람이 만드는
생태문화예술을 기록하다

